



- ▶▶ [이달의 인물] 대아고 2학년 김성윤, 박재성, 장현서
- ▶▶ [청소년 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사례 발생...사용중단
교육부 정식 확대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가닥
'프듀X'·'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 ▶▶ [학교소식] 경진고 미술예술경연대회서 상 휩쓸어
경남정보고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최우수
문산중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 최우수상
봉원중 조화령 학생 치매인식개선 작품 공모전 대상
- ▶▶ [맷강년맷반] 경해여자고등학교 2학년 5반편
- ▶▶ [맷강년맷반-신청] 진주기계공고 1학년 5반편
- ▶▶ [틴틴이슈] 악플과 혐오 그리고 최진리의 죽음
- ▶▶ [19금 톡톡] 19세미만 취취불가, 어떻게 막나?
- ▶▶ [클래스&클라스] 대아고 2학년 6반의 클.라.스!
- ▶▶ [필통토론펙] 귀어문화축제 여러분의 생각은?
- ▶▶ [진주투어] 교육도시 진주, 대학만 8개가 있다
- ▶▶ [필통뮤직차트] 이것만은 듣지마! 수능금지곡!
- ▶▶ [동아리탐방] 삼현여고 댄스동아리 블랙십

- ▶▶ [반보드 Chart] 진주여고 1학년 VS 동명고 2학년
- ▶▶ [I'M FASHION PEOPLE] 정민우(사대부고1), 임윤주(경해여고1)
- ▶▶ [SNS 맞짱 검증] 돈까스 전문점 1440수제이야기
- ▶▶ [JOB을 잡아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미영님을 만나다
- ▶▶ [씨네통통] 82년생 김지영 KIM JI-YOUNG, BORN 1982, 2019
- ▶▶ [나의펫&우리티켓] 뱀뱀이 그리고 햄스터 한 가족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우석대 항공서비스학과를 김예인을 만나다
- ▶▶ [필통번역실]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불러봐
- ▶▶ [취재수첩] 교사들의 학교내 흡연 문제 있다
10시면 왜 모두 청소년 유해장소가 되는가?
우리는 詩도 무조건 외우면 되나요?
5시가 되면 문 닫히는 학교 보건실?
학교에서 칫솔 관리 어떻게 하니?
학생들의 시험 중 질문, 과연 공정한가?
- ▶▶ [필통유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0월호 문제

고3 수험생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시간을 채워 온
여러분 모두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언제나 필통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대아고 2학년 김성운, 박재성, 장현서

팀 클라우스로 전국토론대회 우승했어요

Q.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김성운 :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 동아리 '아고라'의 부장이자 팀 클라우스의 팀장과 반박을 담당한 김성운입니다.
A. 박재성 : 저는 '아고라'의 차장이자 팀 클라우스에서 입안을 맡은 박재성입니다.
A. 장현서 : 저는 '아고라'의 부원이자 팀 클라우스에서 요약과 마지막초점을 담당한 장현서입니다.

Q. 정확히 어떤 토론 대회인가요?

A. 클라우스 : 도산 안창호가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인 흥사단이 주최한 '제 5회 흥사

고박는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Q. 토론 대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클라우스 : 교내 동아리 '아고라'라는 토론 동아리를 이끌고 있으며, 토론을 자주 하는데,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 토론 대회에 참가해 다른 여러 학교들의 친구들과 토론을 해 보면 실력도 키울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팀으로 대회에 나갔는데 팀 이름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아고 아고라소속입니다. 클라우스는 ‘승리의 인도자’의 뜻을 가진 독일어”

단 중고등학생 전국 토론대회'로 고등부는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Q. 토론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나요?

A. 클라우스 : 이번에 한 토론 형식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로 입안, 반박, 요약, 마지막 초점의 순서로 진행되는 토론 형식입니다. 특히 형식을 중요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부분을 제대로 인지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1대 1 교차질의와 전체 교차질의 시간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질문을 주

A. 클라우스 : 저희 팀의 이름은 '클라우스'인데, 의미는 독일어로 '승리의 인도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클라우스로 짓게 되었습니다.

Q. 전국대회인데 긴장되지는 않았나요?

A. 박재성 : 많이 긴장되었죠. 버스로 4시간을 달려서인지 피곤한 것도 있었고, 대회 도중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밥도 잘 안 넘어갔습니다. 특히, 수도권 팀들의 능숙한 토론 실력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지만, 이왕 온 거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Q. 토론 대회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A. 클라우스 : 토론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료,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해서 미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찾는 것 등 준비를 열심히 해야 말을 잘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다른 토론대회는?

"저는 작년에 이번 팀원과는 다른 친구들이랑 흥사단이 주최하는 토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도대회 8강부터 시작되었는데, 하필 첫 경기 상대가 우승했던 동아리 선배 팀을 만나게 되어서 저희는 첫 경기 탈락하고 참가상만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똑같은 대회에서 작년에는 광탈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이번에는 전국대회까지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통일을 주제로 한 전국토론대회를 열었을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논제는 '한반도는 1국가 2체제로 통일해야 한다.'였는데 2박 3일 동안 DMZ(비무장지대)일대를 탐방해보고 남북 간의 관계와 통일의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물렸던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과 함께 토론대회도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MI를 하자면 그 대회에서도 저희가 운 좋게 우승했습니다."



<팀 클라우스 토론팀 왼쪽부터 박재성, 장현서, 김성운이다>

이죠. 저희는 팀원들이 모두 말도 잘하지만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A. 클라우스 : 어려웠던 점은 교내대회, 도대회를 거쳐 전국대회를 가게 되었는데, 토론을 준비하던 기간이 내신기간과 겹쳐서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한 점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의 토론이 한 번 할 때 마다 약 40분 정도가 소요돼서 토론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토론대회 상금은 어떻게 썼나요?

A. 김성운 : 시상식이 끝나고 현장에서 상금을 바로 주셔서, 일부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할 때 쓰기위해 남겨 놓고, 나머지는 팀원들이랑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랑 서울 구경하면서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데 대부분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많이 없어요.

Q.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A. 김성운 : 결승전 경기의 상대팀이 너무 말을 잘하고, 준비도 다방면으로 많이 준비해왔길래 솔직히 우승할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

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만 제대로 보여주고 후회하지만 말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막상 우승을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해온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 받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우승한 사실보다 빨리 놀러가자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나요?

A. 클라우스 :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분은 누가 뭐래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인 김병훈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아고라를 오랫동안 담당해 오시고, 대회도 많이 지도해 오셔서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으시면서 입시에 신경 쓰시기도 바쁘신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열심히 연습해준 '로그스'팀의 한태석, 서영찬, 이승한 친구도 너무 고생했고, 1학년 '최강한' 팀 친구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래희망이 궁금해 집니다?

제 장래희망은 펀드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말하기나 토론과 관련 없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등은 장래희망에 관련 없이 사람들과 맞대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사회학과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는 강연을 통해 대학생뿐 아니라 불특정 청자 앞에서 논리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때로는 재치 있게 주제에 맞는 학문적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 중 질문을 잘 경청하고 대답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과 순발력 있게 누군가가 던진 질문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대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장래희망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그 뜻을 최대한 큰 목소리로 이뤄내기 위한 자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말하는 토론과 정치인이 하는 일은 많은 면에서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어떤 토론도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



<김성운은 최우수 토론자상도 함께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사례 발생 사용중단 권고

미국에서 폐손상 및 사망 다수...국내에서도 의심사례 신고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사례 1479건 및 사망 사례 33건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것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흡연예방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와 니코틴 등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만男·폭음女 역대 최고 전자담배에 빠진 청소년 증가



지난 20년간 담배를 피우는 성인 남성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성 흡연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인구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 여성 4명 중 1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이래 음주행태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0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각 전국 4416가구 성인 남녀 1만 명과 중·고등학교 800개교 6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것은 남성의 흡연율이었다. 지난해 19세 이상 남성의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1998년 66.3%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36.7%로 29.6%포인트 감소했다. 20

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7.5%로 1998년(6.5%)보다 1.0% 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 7.9% 이후 두번째로 높은 여성 흡연율을 보였다. 전체 흡연율은 22.4%로 2017년(22.3%)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청소년 흡연율은 올해 6.7%로 2016년 이후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7년 2.2%에서 올해 3.2%로 늘었고, 올해 첫 조사한 걸러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6%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경우 올해 주 5일 이상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한 남학생은 21.5%, 여학생은 7.3%였다. 10년 전 15.7%, 5.4%보다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소년의 식생활 지표 역시 올해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5.5%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탄산음료 섭취율은 24%에서 37%로 증가했다. 반면 과일 섭취율은 2005년 32.6%에서 올해 20.5%로 줄었다.

교육부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가닥



교육부가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비율 및 추진시기 등을 오는 11월께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자사고 및 특목고에 대해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교육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요대학과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

집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차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1월까지 일선 시도 교육청 및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게다가 고교만 졸업해도 취업하고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탄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우리는 이용당했다 프듀X·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미국에서 폐손상 및 사망 다수...국내에서도 의심사례 신고



워너원, 아이오아이, 아이즈원 등을 배출한 Mnet '프로듀스' 시리즈, '아이돌학교' 등 CJ ENM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참가자들은 조작 의혹뿐 아니라 합숙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과정을 밝히고 나서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10월16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CJ와 가짜 오디션'이라는 주제로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X101'과 '아이돌학교' 방송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아이돌학교'에 출연했던 이해인은 "'아이돌학교' 출연자를 아무나 잡고 물어봐서 '3000명 오디션 어디서 어떻게 봤어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할 것"이라며 "(오디션을) 안 봤으니까. (결국 3000명은) 이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인은 경연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합격한 자신에게 제작진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불합격자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아이돌학교'가 방송되는 내내 순위 상위권을 유지했고, 많은 시청자의 지지를 받았으나 최종 순위에서는 11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아이돌학교'의 열악한 촬영 환경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아이돌학교' 연습생들은 제작진이 짜놓은 각본대로 새벽까지 촬영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일부 연습생은 창문, 방충망을 뜯고 탈출하기도 했다. 연습생 B는 생리를 안 했

고, D는 두 달 동안 하혈을 한 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생방송에서 카메라 뒤에 제작진이 금지어 목록을 보여주며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프로듀스X101'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프로듀스X101'은 최종 순위가 발표된 직후 팬들은 구체적인 조작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1위와 2위, 3위와 4위, 6위와 7위의 표차가 같을 뿐 아니라 1위부터 20위까지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주대 최수영 교수는 "로또 아홉 번 연속으로 맞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은 '프로듀스X101' 역시 경연곡 파트 분배나 방송 분량, 문자 투표 집계 역시 그 차이나 방식에 있어 투명함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은 경연곡을 미리 알고 있었고, 울림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은 최종 순위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CJ ENM 측은 'PD수첩' 제작진에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CJ는 '프로듀스X101'을 통해 데뷔한 보이그룹 엑스원의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PD수첩'은 수년 전부터 군소기획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해 몸집을 키운 CJ는 방송, 음악, 공연, 유통까지 관여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산중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 최우수상

진주 문산중학교는 2019 경상남도 학교폭력예방 UCC&산문 공모전에서 UCC부문 중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4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초·중·고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 및 상영되었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서로의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문산중학교의 방송동아리 S.O.S 학생(강한비, 채지우, 김천호, 문정빈, 배서은, 이예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를 UCC로 제작했다.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낸 '가족'이라는 대본과 지도교사의 연출



이 함께 어우러져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는 의미의 영상이 완성된 것이다.

중고교생 스마트폰 보유율 95% 하루 2시간 이상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연령층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중학생으로 95.9%에 달하며 고등학생도 95.2%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3일 김윤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학생과 고교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각각 95.9%와 95.2%로 전체 연령층 평균(87.2%)을 크게 웃돌았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표본 추적조사인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중학생이 2시간 24분으로 가장 길었고, 고등학생은 2시간 15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연령층 평균 이용 시간(1시간 53분)보다 긴 것이다. 카카오톡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고교생이 98.9%에 이르렀고, 중학생 94.5%, 4~6학년 초등학생 88.8%, 1~3학년 초등학생 76.8%였다.

문산중 M.S.G. 전국동아리발표대회 최우수

진주 문산중학교 학생들이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전국과학동아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진주 문산중 과학동아리 'M.S.G.'는 서울과학전시관에서 열린 '제27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전국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월10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인 문산중 M.S.G.는 작년 전국과학동아리발표대회에서도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특전으로 지도교사와 발표 학생들에게 해외과학탐방의 기회도 주어진다. 각 시·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총 8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 중학교 대표인 'M.S.G.'는 대체식품 중 미래식량 곤충을 주제로 식용곤충을 개발하고 사

육, 연구하는 '박스 라이프' 회사에 가상 취직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삼현여중, 문산중 LX진주시사, 꿈길 진로체험학습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주시사가 교육기부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LX 진주시사는 삼현여중 1학년 10명 및 이달 1일 문산중학교 1학년 20명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10월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지적축량과 공간 정보에 대한 소개, 토달스테이션 축량업무 관련 현장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진주봉원중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진주봉원중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상대학교 학생들의 지도를 받는다. 진주봉원중학교는 지난 10월1일 학교 도서관에서 2019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 활동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결연식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경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통한 고등 교육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며 본교 24명의 참여 멘티 학생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학생 멘토 24명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학업성취도 제고, 정서심리 향상, 진로방향 설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진주중앙중 진주폴리텍 직업체험캠프 실시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는 지난 10월16일 진주 중앙중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3D모델링, VR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용접 체험 등 5개 학과에서 다채롭게 준비한 생생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진주폴리텍은 앞으로도 중·고교생 대상 생생한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활동을 지속해 지역 청소년들의 폭넓은 직업세계 탐구 및 건강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봉원중 조화령 학생 치매인식개선 작품 공모전 대상

진주시는 지난 9월 27일 경남광역치매센터에서 개최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파트너 리더단 학생이 작품 공모전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이라는 주제로 치매 관련 작품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에 치매파트너 리더단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치매인식개선 작품 공모전에 봉원중학교 조화령(2학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도 진주중학교 학생 우수상 2명, 장려상 1명이 수상했다. 대상 작품 내용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치매환자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간절한 모습을 그림에 담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



다. 대상 수상자 조화령 학생은 공모전 참여 외에도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봉사 활동, 인지강화교실 서포터 활동 등을 통해 치매파트너 리더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진주동중 조광래FC 경남중등리그 B조 우승

진주동중학교 조광래FC 축구부가 2019년 15세 경남중등리그 B조 우승을 차지했다. 조광래FC의 경남도내 B조 우승은 창단 4년 만에 맞는 쾌거로, 앞으로의 유소년 축구 경남에 청신호로 기대가 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남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19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경남권역 주말리그가 지난 10월 27일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고등부 9개팀, 중등부 14개팀(2개조), 초등부 26개팀(3개조) 등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인 경남은 총 49개팀 356경기라는 많은 경



기를 통해 각 권역별 우승자를 가려졌다.

경진고 국내 항공산업 현황 특강

경진고등학교는 지난 10월15일 교내 도서관에서 컴퓨터전자과 1·2학년 60명을 대상으로 도립남해대학 이진후 교수를 초빙해 '국내 항공산업 현황'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경진고와 도립남해대학이 체결한 연계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경진고의 컴퓨터전자과와 남해대학 항공정비학부는 교원 상호 특강 및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진주여고 진로체험팀 경남일보 견학

10월17일 오후 진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언론문화사서팀(이하현 외 12명)은 경남일보 본사를 찾아 진로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경남일보 역사, 언론직업 소개, 신문제작 과정 등에 대해 강의를 받았다. 또 윤전실 등 신문제작 시설을 둘러봤다.

진주기계공고 총동창회 후배사랑 특강 실시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모교인재성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달 10월27일 1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18회 졸업생 임영택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장이 강사로 나서 '미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경해여고, 진주중앙중 체험! 법의 현장 참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법무부 법사량위원 진주지역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체험! 법의 현장' 프로그램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체험! 법의 현장'은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진주지청을 직접 방문해 검찰이 하는 업무,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시청과 검찰에 대한 퀴즈 문제 풀이, 검찰이 하는 일 등에 대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15일에는 경해여고, 진주중앙중, 진주중, 진명여중 학생 80명이 진주지청을 방문해 2시간 동안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학습에서는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는 수갑 차는 법과 푸는 법을 실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기타 수사 장비 소개, 영상녹화 조사실과 법정 견학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켰다.

진주시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성료

진주시는 지난 10월12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2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 한 가운데 2019년 진주시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예선에 참가한 27개 팀 중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이 무대에 올라 가요와 댄스 부문 경연을 펼쳤다. 가요부문에서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 듀엣팀 '사운드플레이스'가 댄스부문에서는 팀원 간의 호흡과 화려한 안무가 돋보인 '디바인(경해여중)'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경진고 미용예술경연대회서 상 휩쓸어

경진고등학교는 경남도내 우수 미용인을 발굴하고 미용기술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의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진고는 1학년 17명, 2학년 9명 등 총 24명의 학생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진고는 창작 업스타일 대상 1명을 비롯해, 펌외인딩, 이사도라 컷트, 신부메이크업, 시대메이크업, 드라이, 네일-매니큐어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상 8명, 은상 13명, 동상 11명, 장려상 5명 등 총 38개의 상을 수상했다. 경진고는 헤어 디자인 과정과 더불어 매니큐어와 메이크업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와 메이크업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남정보고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최우수

경남정보고가 '제13회 경남도 청소년 119 안전뉴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매년 경남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문제점·해결방안을 제기하며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경남정보고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5분짜리 동영상으로 제작해 호평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정보고와 진주소방서는 다음달 11월 21일 대전 시청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에서 경남 대



표로 출전해 전국 시·도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올라온 팀들과 열띤 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아프리카TV · 넥슨고등피파 대아고

지난 10월10일 대아고 학생들은 웅기종기 모여 스크린을 주시했다. 응원팀이 수세에 몰리자 "질질 끌지 말고 위로 패스했어야지" "제라드는 언제 투입할 거야" 등 훈수가 나왔다. 단체로 축구관람을 하는가 싶었지만 스크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컴퓨터 그래픽이다. 푸른 그라운드를 게임 캐릭터가 누비고 있다. 실제 프로축구 응원전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게임대회 '고등피파' 촬영 현장이다. 고등피파는 아프리카TV와 게임사 넥슨이 공동 진행하는 고등학교 게임대항전이다. 전국 고등학교 대표들이 넥슨의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4'로 실력을 겨루는 방식이다. 이날은 대아고와 부산 금



곡고가 맞대결을 펼쳤다. 앞서 대아고는 강원 철원 김화고와 경기 평택 동일공고를 연달아 이겨 기세가 대단했다. 이들의 3연승을 저지하기 위해 금곡고가 대표로 나섰다. 이날 두 학교는 총 3판 대결을 펼쳤다. 대아고가 3대0(3-0, 2-0, 2-0)으로 이겼다.

경남자동차고 민진혁군 전국기능대회 동메달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3학년 민진혁 학생이 최근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페인팅 직종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0월16일 밝혔다. 경남자동차고는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메달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대회는 50개 직종 18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최고 기능인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동메달을 수상한 민진혁 학생은 3년간 기능연수생으로 활동하며 2학년까지는 자동차차체수리 직종의 선수로 참가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3학년에는 자동차페인팅 직종에 참가해 동메달을 수상했다.

진주제일여고 제4회 과학·수학 한마당 개최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는 10월12일 '2019 진주제일여고 과학·수학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과학·수학 한마당 행사는 지난 2016년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 경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부경남의 이공계 체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시키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선진형 교육 문화를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 온 진주제일여고는 이번 제4회 행사를 '제2의 비상(飛上)'으로 규정하고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수준 높은 행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총 41개 체험부스에서 208명의 운영진이 활동하며 과학, 수학 과목 지도교사 또한 총 18명이 참여하여 질적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매스박스(Math Box)를 활용한 수학교구체험전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어서 예년보다 높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진,윤상이)3명, 3학년(정수용,정진영)2명 등 총 8명으로 선수가 구성되어있다.

경남체육고 이신선수 전국체전 성화 최종주자로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신(2학년)학생 선수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최종 성화 점화 주자로 선정됐다. 이신 학생은 새터민으로 2년 연속 미스터 코리아 보디빌딩

대회(-70kg)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가고 있다.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주제는 '몸의 신화, 100년의 탄생'이며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는 1986년 대회 이후 33만에 서울에서 불을 밝히는 전국체전 성화 점화식으로 체육계 원로와 미래 꿈나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와 새터민, 장애인 등 시민 등 총 10명으로 공동으로 나섰다.

경상사대부설고 창의융합 공학캠프 진행

전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공학적 소양과 진로탐구역량을 기르기 위한 '굿메이커스(Good-Makers) 창의융합 공학캠프'를 열었다고 10월8일 밝혔다. 공학캠프는 '문제 중심 학습'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형 전자기동차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공학적 소양 함양과 이공학 전공 안내 및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

산업 분야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인 창의력과 협업능력, 진로탐색역량을 기르기 위한 메이커스 역량에 초점을 뒀다. 전자기동차의 제작 활동 중 5인이 1팀이 돼 아이디어 협의를 하고, 창의적인 설계와 팀워크를 통해 역할을 분담, 협업하고 시승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특히 돋보였다.

경남중기청, 진주기공서 특성화고 잡 페스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월25일 진주기공공업고등학교 교내 체육관에서 '특성화고 잡페스타(Job Festa)'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3개 기업이 참여하여 220명이 채용면접을 했으며, 43명이 실제 채용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CEO 취업진로 특강, 학부모 초청 취업설명회 및 기업체 방문, 특성화고 융합 프로젝트 결과 전시회 등을 했다.

진주제일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 개최

조규일 진주시장은 9월16일 오후 6시 30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는 10월 5일 '제2회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행사를 넘어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눈길을 끌었다. 진주제일여고는 지난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인문학콘서트 부스 체험활동을 통해 인문교양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은 인문학콘서트는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양적, 질적인 면에서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특히, 인문학콘서트 TF팀을 만들어 행사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수차례 토의활동을 했다고 한다. 한편 진주제일여고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과학·수학뿐 아니라 인문 계열학생을 위한 다양한 강연, 체험,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융합성 인재를 키워가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삼현여고, 시의회서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지난 10월25일 진주 삼현여고 학생들이 진주시의회를 방문해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삼현여고 토론동아리(아고라) 1~2학년 학생 20명은 이날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역할을 지정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모의의회에서는 '진주 시내 상가 활성화',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등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했다.

공군 항공과학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지난 10월11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 동메달 등 다수 입상자를 배출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숙련기술 유대 풍토를 조성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회로, 매년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부산기공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메카트로닉스 기계와 전자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학문 등 50개 직종에 1,800여명의 기술인들이 참가했다. 항공과학고 학생들은 참가한 3개 직종에서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VS



동명고 2학년



<필통 반보드 Chart>는 매월 남녀 고등학교 한 학년을 선택하여 청소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는 다가오는 겨울을 주제로 가볍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하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진주 동명고 2학년 학생 30명과 진주여고 1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롱패딩 가고 숏패딩 온다! 과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겨울 준비가 분주해지고 있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와 함께 시작된 롱패딩 열풍은 지난겨울까지 이어졌다. 의류업계에서는 이번 겨울 롱패딩 유행이 가고 숏패딩이 유행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의 다른 이름인 누리꾼들은 겨울 준비로 롱패딩과 숏패딩 중 무엇을 선택할까. 최근 한 달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숏패딩이 과연 롱패딩의 인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인스타그램 게시물수 '롱패딩 100 vs. 숏패딩 47'

겨울채비가 시작되는 10월(10.1~29)

한 달간 '롱패딩'과 '숏패딩'의 네이버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 롱패딩이 숏패딩보다 꾸준히 검색량에서 우위를 보였다. 검색지수는 조사기간 중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인 검색량을 지수화한 것이다. 한 달간 누리꾼들이 롱패딩을 100회 검색했다면 숏패딩은 68회 검색했다는 의미다.

SNS 채널 중 소비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분석 결과에서는 롱패딩과 숏패딩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10월 중 롱패딩과 숏패딩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각각 8286건, 3879건 발생했다. 숏패딩에 대한 월간 게시물수가 롱패딩 게시물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8%에 머문 것이다.

◇ 누리꾼들 롱패딩에 대한 무한애정 숏패딩엔 냉담

롱패딩과 숏패딩에 대한 누리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관련 기사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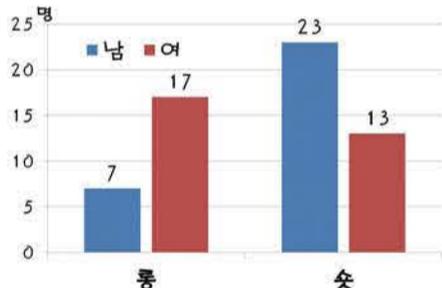
관련기사의 전체 댓글을 분석한 결과 숏패딩 또는 숏패딩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90.6%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긍정 의견은 0.9%에 불과, 중립 의견은 8.6%로 집계됐다. 숏패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업계의 '상술'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롱패딩에 대해서는 패션이템을 떠나 방한·보온 등의 기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아이템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1. 롱패딩 VS 숏패딩 #2. 이번 겨울 나의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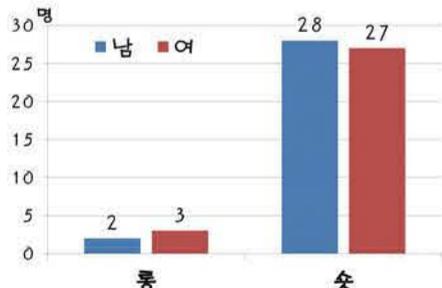
과거 숏패딩이 대중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2017~2018년 겨울은 그야말로 롱패딩 시즌이었다. 롱패딩의 열풍에는 유명 연예인의 광고, 평창 롱패딩, 추운 날씨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도 롱패딩을 입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모 중학교의 한 반 30명 중 28명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다가오는 겨울, 2019년의 롱패딩 유행은 불확실하다. 숏패딩과 롱패딩을 여러 면에서 비교해보자.

[착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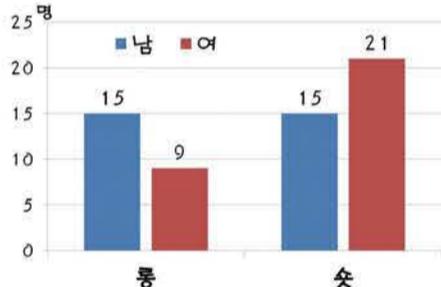
착용감은 패딩을 입었을 때 얼마나 편한지를 말한다. 교복 위에 입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더 중요한 부분이다. 남학생들은 대체로 숏패딩이 더 편하다고 느꼈고, 여학생들의 경우 롱패딩이 조금 더 우세했다.

[활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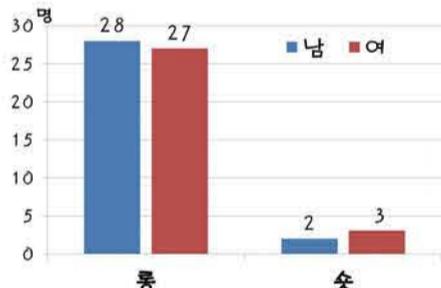
활동성은 패딩을 입고 움직이기에 편한 정도를 말한다. 활동성 면에서는 거의 모두 숏패딩의 손을 들어주었다. 활동하기 좋은 것은 숏패딩이지만 추위에는 롱패딩이란 결론이다. 겨울 날씨가 어떨지라도 패딩 선택에 중요한 변수이지 싶다. 그런데 요즘 겨울은 진짜 춥다 ^^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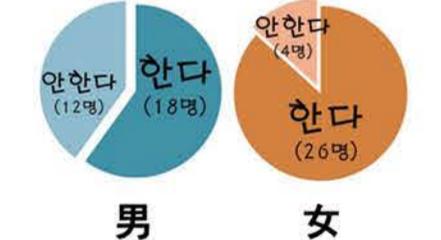
여기서 디자인은 패딩의 외형을 말한다. 패딩을 떠나 옷을 고를 때 디자인은 중요하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숏패딩이 디자인 면에서 뛰어나다고 느낀 반면, 남학생 쪽은 반반으로 평평하게 갈렸다.

[방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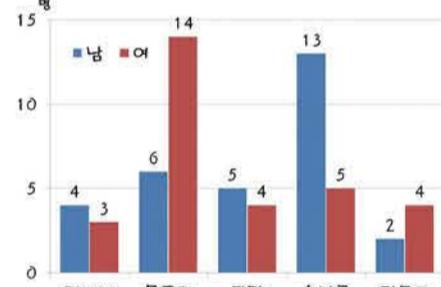
방한성은 입었을 때 추위를 얼마나 막아주는지를 말한다. 예상대로 다들 롱패딩의 방한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원래 유니폼한 장 입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제작된 옷이 롱패딩이니 이런 결과가 나올만하다.

[롱패딩, 이번 겨울에도 유행할까?]



과거 동계올림픽이전에는 롱패딩은 쉽게 볼 수 없었던 패션이었다. 과연 롱패딩은 반짝 유행으로 끝날까? 아니면 지소될까? 여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유행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남학생들의 경우 유행한다는 투표가 조금 우세하긴 하나 안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추운 겨울날이중 하나만 쓸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한용품은 무엇일까? 겨울 한파를 견디려면 방한용품 또한 중요하다. 추운 겨울에 5종의 방한용품 중 하나만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 투표해 선호도를 알아 보았다. 남학생들의 경우 손난로가 가장 높게 나왔고, 여학생들의 경우 목도리가 가장 우세했다. 남녀 30명씩 투표했음에도 확연한 선호도 차이가 보이는 것이 놀랍다.

겨울에 더하고 싶은 것은?



겨울스포츠(스키나 스노보드 등) 즐기거나 따뜻한 이불안에서 꿀까먹기 다가오는 추위가 마냥 싫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나온 겨울 간식의 유혹, 더불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겨울 스포츠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조금은 극단적인 두가지의 선택지를 예로 들어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 보았다. 조금은 의외의 결과다. 남, 여학생 구별 없이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에서의 휴식을 선택했다. 너무 춥다고 따뜻한 방안만 찾지 말고 친구들과 신나는 겨울스포츠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겨울 간식 중 최고는?



차가워진 몸을 달래주는 달콤한 겨울간식이 빠질 수 없다. 인기 있는 겨울 대표간식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선호도를 알아 보았다. 남학생들의 경우 굴이 13표로 가장 높고, 여학생들의 경우 붕어빵이 10표로 최고 득표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여학생 쪽에서 호떡이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필통 TMI] 패딩은 사실 콩글리시다?

네이버 어학사전에 a padding jacket(패딩 재킷)을 검색했을 때 a padded jacket(패디드 재킷)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 사실 패딩은 콩글리시인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권에서는 패딩을 어떻게 부를까? padded jacket, down jacket, puffed jacket 등으로 불리고, 롱패딩은 Bench Long Down, padded coat 등으로 불린다고 한다. padding의 원래 의미는 충전재이고 채워 넣는다는 뜻에서 유래해 콩글리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틴틴이슈] 악플과 혐오 그리고 최진리의 죽음

무수한 악플의 밤.. 결국 설리는 세상을 놓았다

설리를 죽인 범인은 없다. 죄인만 있을 뿐이다.

네티즌 사이에선 또 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같은 질문에 제각각 다르게 대답했다.

과연 '누가' 설리를 죽였는가. 혹자는 그를 놓고 성희롱을 일삼던 사람들 때문이라 답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설리를 비난하던 사람들 때문이라 말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한 이후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아니 지금까지 설리는 너무나도 많은 논란들에 시달려왔다. 수많은 논란들이 정말 그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최진리를 죽인 범인은 없다. 죄인만 있을 뿐이다. 다시 기억을 떠올려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하던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여성 해방에 앞장섰던 운동가'라 말한다. 아무렇지 않게 그를 성적 대상화하던 자들

은 '페미니스트들이 설리를 죽였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죄인은 되고 싶지 않은 탓이라. 그녀의 이름을 딴 법을 제정하겠다는 국회의원의 말에도, 그녀를 기억한다는 수많은 이들의 말에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를 우리, 이제는 인정하자. 그녀를 아는 사람 중 그녀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논의들이 왜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안타깝고 슬픈 일들은 왜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돌 문화의 잘못인지,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이 시장이 문제인건지, 그렇다면 아예 이 산업이 없어져야 하는 건지. 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대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논쟁들이 안타까운 또 다른 이유는, 다시는 그녀의 죽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필통 타임라인



PRESS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군가 특정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설리의 죽음은 악플을 단 사람들에게 있을까? 아니면 악플을 막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을까? 아니면 이런 사회를 만든 정부와 언론에 있을까? 나는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설리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해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을 버리고 죽는 것은 배신이다. 적어도 자살을 선택하면 안된다.

설리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팬들의 수가 많을수록 안티팬들도 많고 악플도 많다. 두 번 다시 설리와 같은 연예인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배재현(사대부고1)기자



PRESS
지금 당장 인터넷 기사 댓글창을 들어가도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악플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악플러들은 말한다. '연예인은 공인이나 욕먹을 감수 정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예인이라고 해서, 공인이라고 해서 욕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 치고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길래 평가하고 멋대로 판단해 결론지어 버리는지.

그런데 나는 설리의 죽음이 악플러들에 의해 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기삿거리로 삼았던 언론은 물론, 몰타기에 휩쓸린 사람들, 소속 연예인의 멘탈케어에 신경 쓰지 않은 소속사 등 수많은 사람들도 또 다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그간의 일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주된 원인인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PRESS
설리가 극단적이 선택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설리를 비난해 왔던 수많은 악플러들과 그런 악플을 그대로 퍼다 날라 선정적으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악플이 많아지고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sns를 들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인사이x, 위키트x 등 유사언론이 등장하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나 특정부분만 기사 제목에 언급하여 일반인들을 선동하여 악플을 달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연예계 구조를 방치하고 소비한 사람들, 연예인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속마음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플로 사회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국가기관까지, 악플로 인한 자살의 책임은 우리 모두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효과 있는 정책과 개념 있는 인터넷 생활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정병훈(진양고2)기자

설리의 죽음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즉 이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악플러들이다. 이 악플러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을 하며 설리를 괴롭혔다. 악플러들이 설리를 죽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한 것이다. 죽음을 선택한 것은 자신인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속담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과연 설리가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죽음 이외의 방법들을 찾아야 했다. 죽음이라는 불씨를 만든 것은 악플러들이었지만 불을 붙인 것은 자신일 수밖에 없다. 너무 안타깝다. 악플러 없는 세상으로 갔었길... /한재덕(진주고1)기자



PRESS
공인에 대한 비난이 당연히 되고 있다. 그 중 최고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그들에게 좋은 비난의 대상이다. 미디어에서는 정치인들의 엽기적인 행각, 막말을 보여준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대립할 수밖에 없고, 대립하는 게 맞다. 높아지는 연봉은 결국 비난세레로 간다.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범죄자의 경우에도 그렇다. 댓글 창은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등으로 도배되어 있다.

설리는 사회적 이슈에 자주 오른 연예인 중 한 명이었다. 그 중 비판받을 점 또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악플의 힘이 더 거셌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이다. 이제 와서 연예인 욕은 안 되고, 살인마와 정치꾼은 죽일 놈들이다. 기사감은 괴리를 동반할텐데, 이걸 그렇지 않나보다./김동민(동명고2)기자

민언련은 가장 악의적인 보도로 4월 17일자 스포츠서울의 "시선 강간 싫다" 설리, 논란 후



PRESS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다. 악플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특 던진 말이 비수가 돼서 날아간다. 수십 수백만 명이 댓글을 다는데 좋은 글이 99퍼센트여도 사람은 1퍼센트의 악플에 상처를 받는다.

자기가 편한대로 행복하도록 산 설리가 잘못일까? 그렇지 않다. 그런 설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악플러들은 댓글을 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 글에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고 댓글을 쓴다. 설리의 죽음은 악플러의 잘못이다. 악플을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악플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또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김의석(대야고2)기자



PRESS
사람들은 악플을 단 악플러들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잘못을 따져도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일종의 사회적 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악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정신관리 또한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장은령(진양고2)기자

직접적으로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은 물론이고,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사생활까지 꼬집어내 가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쓴다. 조회수를 끌어모으는데만 집착하던 수많은 언론이 그에 해당한다. 언론들이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같은 거창한 대의명분 때문에 설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을까? 절대 아니다. 과연 기사를 쓴 후 설리가 받을 상처들을 생각 못 했을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악플러들이 조회수가 된다는 점을 알고 트래픽 장사할 생각에 악플의 양산을 부추긴 것이다.

설리의 죽음에도 언론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점을 깨닫고 자중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으로 고통 받은 연예인은 설리 말고도 수없이 많았다. 반성했으면 진작에 반성했을 것이다.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잠깐의 분노와 추모를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원지현(학교 밖)기자

방송사의 경우 MBN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이 32건을 기록했다. KBS, SBS, 채널 A, 연합뉴스TV는 0건이었다. 17개 연예·스포츠 매체는 뉴스엔 254건, OSEN 241건, 헤럴드POP 240건, 마이데일리 224건, 익스포츠뉴스 203건, 일간스포츠 192건, 스포츠조선 174건 순이었다. 뉴스통신사 중에는 뉴스1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는 6건이었다.

민언련은 가장 악의적인 보도로 4월 17일자 스포츠서울의 "시선 강간 싫다" 설리, 논란 후



PRESS
사람들은 악플을 단 악플러들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잘못을 따져도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일종의 사회적 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악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정신관리 또한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장은령(진양고2)기자



PRESS
직접적으로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은 물론이고,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사생활까지 꼬집어내 가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쓴다. 조회수를 끌어모으는데만 집착하던 수많은 언론이 그에 해당한다. 언론들이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같은 거창한 대의명분 때문에 설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을까? 절대 아니다. 과연 기사를 쓴 후 설리가 받을 상처들을 생각 못 했을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악플러들이 조회수가 된다는 점을 알고 트래픽 장사할 생각에 악플의 양산을 부추긴 것이다.

설리의 죽음에도 언론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점을 깨닫고 자중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으로 고통 받은 연예인은 설리 말고도 수없이 많았다. 반성했으면 진작에 반성했을 것이다.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잠깐의 분노와 추모를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원지현(학교 밖)기자



PRESS
공인에 대한 비난이 당연히 되고 있다. 그 중 최고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그들에게 좋은 비난의 대상이다. 미디어에서는 정치인들의 엽기적인 행각, 막말을 보여준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대립할 수밖에 없고, 대립하는 게 맞다. 높아지는 연봉은 결국 비난세레로 간다.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범죄자의 경우에도 그렇다. 댓글 창은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등으로 도배되어 있다.

설리는 사회적 이슈에 자주 오른 연예인 중 한 명이었다. 그 중 비판받을 점 또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악플의 힘이 더 거셌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이다. 이제 와서 연예인 욕은 안 되고, 살인마와 정치꾼은 죽일 놈들이다. 기사감은 괴리를 동반할텐데, 이걸 그렇지 않나보다./김동민(동명고2)기자

민언련은 가장 악의적인 보도로 4월 17일자 스포츠서울의 "시선 강간 싫다" 설리, 논란 후

언론은 설리에게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잔인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 관련 언론 매체들의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죽음마저 기사로 파는 언론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10월29일 공개한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언론은 설리에 대해 무례하고 무책임했고 잔인했다"며 "논란이 아닌 것에 '논란'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악성 댓글을 그대로 가져와 기사에 덧붙이는 등 논란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생전에도 그를 둘러싼 보도에 매우 문제가 많았음에도 민언련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단 한 번도 내지를 못했다"면

서 "언론 행태를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과했다. 보고서는 설리가 사망하기 전날인 10월13일부터 이전 6개월 동안 종합일간지, 경제지, 방송사, 연예·스포츠 매체, 뉴스통신사가 송고한 지면과 온라인 기사들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종합일간지 중 해당 기간 설리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쓴 곳은 한국일보로 86건을 기록했으며, 서울신문과 세계일보가 각각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8건, 문화일보 3건, 한겨레 2건이었다. 7개 경제지 중에선 매일경제가 149건, 한국경제가 144건으로 일간지를 훨씬 웃도는 보

도량을 보였다.

방송사의 경우 MBN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이 32건을 기록했다. KBS, SBS, 채널 A, 연합뉴스TV는 0건이었다. 17개 연예·스포츠 매체는 뉴스엔 254건, OSEN 241건, 헤럴드POP 240건, 마이데일리 224건, 익스포츠뉴스 203건, 일간스포츠 192건, 스포츠조선 174건 순이었다. 뉴스통신사 중에는 뉴스1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는 6건이었다.

민언련은 가장 악의적인 보도로 4월 17일자 스포츠서울의 "시선 강간 싫다" 설리, 논란 후



에도 속옷 미착용 사진 공개, 4월 18일자 스타뉴스 '설리, 해바라기 깨물며 뽀뽀 '명품 몸매'와 서울신문 '설리, 브라는 했는데 이번엔 하의가...' 5월 22일자 일간스포츠 '누가 설리에게 시선강간 단어를 알려줬나' 등을 꼽았다.

[19금 특특] 19세미만 청취불가, 어떻게 막나?

19세 미만 청취불가? 욕설과 선정적인 가사가 어느정도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나 버스 안에서, 또는 길을 걸어가며 자주 노래를 즐겨 듣는다. 흥겹고 잔잔한 멜로디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뿐더러 우울했던 기분을 업 시켜주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노래의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때는 알지 못하더라도 가요와 팝송의 몇몇

의 노래가사에는 혼자 노래를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낮 뜨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랩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힙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하지만 이 랩 가사의 대부분은 선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19금 노래 가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나요?

대체 어떻게 못 듣게 하겠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청소년이 노래를 즐겨 듣는 편이다. 하지만 그 수많은 노래 중 19금이 붙어있는 노래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19금 노래들은 대부분 정치비판, 욕설, 성적인 묘사 기타 등등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판단되는 내용으로 19금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술, 담배, 안아줘요 등등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바로 19금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저건 좀 너무 하지 않나?' 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19세 미만 청취불가' 심하게 말하면 좀 해괴한 말이다. 대체 어떤 내용이 있어야 청소년들은 들으면 안 되는 것일까? 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내용이 가사에 있으면 그 노래는 19금이 되어야 할까? 성적인 묘사가 어느정도까지가 딱 19세 기준이 되는 것일까?

물론 청소년은 보호를 해야 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음악인들과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경계 없고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들 때문에 가사를 정직하고 예의바르게 쓰게 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면 '19세 미만 청취불가' 이런 얘기는 없어도 될지 모른다. 사실 욕설과

선정적인 가사가 가득한 노래에 청소년들이 환호할 리 없다. 또한 그 가사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 우리 청소년들은 문화를 즐기고 비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른들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표적인 19금 노래들]

- ▼ 술, 담배 - 감성밴드 여우비(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
- ▼ 욕설 - 가인(fuck u), 개리(xx올라), gd(그 새끼), 블랙넷(100), 데프콘(독고다이)
- ▼ 성 - 프라이머리(아끼지 마), 개리(조금 이따 샤워해), 개리(영당이), 김지수(please), 10cm (오늘밤에/쓰담쓰담), 리쌍(tv를 켜네), GD&TOP(집에 가지마 뺨이가요), 크러쉬&지코(오아시스), 산이(바디 랭귀지), 블랙넷(가가 라이브), 블랙넷(빈지노)
- ▼ 자살(청소년유해) - 산이(더 불행했음 좋겠다)



따라 불렀던 팝송! 놀랄만한 가사들

혼자보다 둘, 둘보다는 셋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 - 3

▶가사 : 하나, 둘, 셋 너와 나 둘만이 아니라 셋이서 180도를 이루고 있어. 그리고 난 둘 사이에 끼여있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피터, 폴, 메리 세 명이 같이 몸을 굽힌 채 누워 있지 모두 좋아할 거야 세어보자...

▶내용 : 피터, 폴, 메리가 함께 하는 본격 쓰리섬 권장 노래. 심지어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원, 투, 쓰리만 줄곧 따라 부르고 가사의 내용을 몰랐다면 충격 받을지도 모른다. 노골적인 가사에 힘입어 야동 장면을 합성한 무삭제판 뮤직비디오까지 떠돌았다고 한다.



방에서, 차에서 신나는 오늘밤

아레아나 그란데(Ariana Grande, Nicki Minaj) - Bang Bang

▶가사 : 뱅뱅, 방안으로(네가 원한다는 걸 알아) 뱅뱅, 너의 모든 걸(네가 갖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거기로 데려다 줄게 기다려 그때까지 뱅뱅, 너의 심장이 느껴져 뒤, 내 차 뒷자석에서(네가 갖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거기로 데려다 줄게 기다려 그때까지

▶내용 : 세계적인 여성 뮤지션들이 함께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 프로듀스 101의 연습생들의 커버로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Bang은 속어로 섹스를 의미한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눠요

존레전드(John Legend) - P.D.A. (We Just Don't Care)

▶가사 : 식당 문 닫는 걸 봤어 네 상사가 떠나면 몰래 숨어들어 그걸 하자. 모두가 떠났을 때 우린 즐길 거야. 어쩌면 이런 잘못된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나를 달아오르

게 만들어. 우린 너의 어머니 집으로 갈 거야. 어머니가 나간 사이 침실에 몰래 들어가자. 아마도 그녀는 우리가 소리 지르면 들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나눌 거야. 그녀가 문을 두드릴 때까지...

▶내용 : 그뿐만 아니다 비상구, 식당, 여친 부모님 침실 등에서 함께 사랑과 스킬을 만끽하자고 꼬드킨다. 이 노래는 가사부터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게 아니야, 나

아레아나 그란데(Ariana Grande) - Side to Side(Feat. Nicki Minaj)

▶내용 : 이 노래 제목인 Side to Side가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다리가 휘청거리는 후유증을 나타낸 거라고 한다.

사랑, 그것은 고통에서 피어난 꽃

리한나(Rihanna) - S&M

▶내용 : 리한나의 노래. S&M은 노래 제목부터 강한 19금의 향기를 풍긴다. 알겠지만 S는 Sadism을 M은 Masochism을 말한다. 즉, 고통을 주거나 받으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이들의 사랑 노래인 셈. 때문에 이 노래가 한때 자동차 SM3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다.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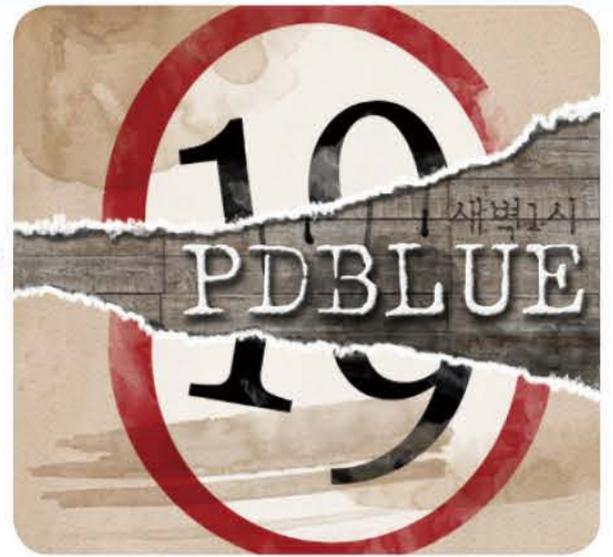
에드 시러(Ed Sheeran) - Shape of You

▶내용 : 많이 알려진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성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가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가씨

숀 멘데스(Shawn Mendes, Camila Cabello) - Se-orito

▶내용 : 미혼여성은 세노리따, 기혼여성은 세노라라고 불렀고 남성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세노라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 생긴 애매모호한 관계에 관한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곡이다.



학생들의 생각들!

Q. 선정적인 내용으로 팝송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A.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 아닐까요? 사회의 불만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사람들과는 달라서 그러는 것 같다.(진주고 1학년)

A. 간단히 말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삼현여고 1학년)

Q. 노래는 좋아도 가사가 선정적이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A.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지만 이성에 관심이 있다면 듣고, 딱히 관심이 없으면 무시할 것 같다.(진주고 1학년)

A.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노래가 좋다면 들을 것 같다.(삼현여고 1학년)

Q. 들었던 팝송중에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팝송이 있나요?

A. Humble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라는 곡이 있는데 마약 같은 내용도 나오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진주고 1학년)

A. 아무래도 사람들이 '프로듀스10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들었던 아레아나 그란데의 Bang Bang 인 것 같다.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지만 가사의 뜻을 알고 나서 부르기 조금 민망해졌다.(삼현여고 1학년)



필통기자 Comment

▶한재덕(진주고1)기자

우리나라 노래가사의 선정성에 놀랐던 때가 있는데 즐겨 듣던 팝송의 가사 내용을 알고 조금은 충격을 받았다. 팝송이다보니 가사를 완전히 알고 듣는 경우가 없으니 실제 가사 내용의 수위 높은 성적 묘사들을 확인하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웠다. 뜻도 모르면서 멜로디가 좋고 유행하는 팝송이라 무조건 따라 부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좋아하는 팝송이 있다면 이제 가사 내용도 한번쯤 살펴보면 좋겠다. 음악에는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지켜야 할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은운희(삼현여고1)기자

노래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렸던 곡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얼마나 놀랄까?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면 모두 다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것에 규제를 두고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닐 것이다. 미성년이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음악이 있고 '19세미만 청취불가'라는 법이 좀 우습지만 결국 좋은 음악을 찾아서 듣는 우리가 되면 될 것 같다. 뮤지션들은 또 좋은 음악을 만들고 들려주면 좋겠다.



[맏칸년맏반] 경해여자고등학교 2학년 5반편

경해여고 우주최강 포라이 2학년 5반!

열정만큼은 유노윤호.. ^^ 늘 우리끼리 행복하다. ㅎㅎ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반은 개개인의 매력이 엄청나다. 어느 한 명 평범한 친구가 없지만 다들 착하다.(성적까지도 ㅠㅠ) 갈수록 수업태도가 좋아진다는 칭찬이 들려오고 있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2학년 생활 잘 마무리하자~!!!!



우리반 얼굴짱کم 박효성선생님~ ^ _ ^

▶ by. GMJ, JGW, GCR

천의 얼굴을 가진 PHS 선생님! 연예인 정준하와 정말 소름돋게 닮았다... 에어팟 PPL 장인이시다. 언제나 함께하는 Gold 목걸이는 선생님의 독특한(?)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준다. 수학을 담당하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과반 담임을 하게 되었고, 처음 여고의 담임을 맡게 되어 멘탈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 하신다. ㅠㅠ 촌데레(한국어로는 새침때기)의 대명사인 호T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애정(?)을 듬뿍 담



아 우리들을 찍어주신다. 인화까지 해 주시는 센스까지. ㅎㅎ 첫인상은 엄격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지만, 학기 초의 파마로 획기적인 헤어스타일을 선보여 한층 인기(?)를 얻게 되셨다는 후문이... ^^ 박효성 선생님! 5반에게...치킨 사주세요~ 사랑합니다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주의사항
강미진	섹시한 남자	김서영은 배우가 천직... 연예인급 미모...	내일도 집에 안 갈래~chu
강서진	오버워치 매번 찢지 받을 수 있는 남자	홍민아 결혼하자♥	커플알레르기 있음. 예취
강수려	현진이 같이 다정다감한 남자	주야 사랑해♥	한지의 대가
강유진	그냥 키 크고 성격 좋은 남자	@yyujin_chu ♥	♡기여움♡...^3^
강지윤	그냥 키 큰 남자	@zz_vely68 ☆	젤리 사주러아!!!!!!
강채림	민트초코 같이 먹여주는 남자	서영이 우주최강 기음찌다...진짜 세상제일 기음다ㅠㅠ	민트초코 욕하지마.
김서영	하은주 같은 남자	↑채콤 유튜브 구독 부탁↑	나 오늘 집에 안 갈래~chu
김채현	매달지게 잘 어울리는 남자	야구 보러 갈 사람♥	카데 조아함☒
김현진	수려같이 수학 잘 하는 존잘러	@hy_diin38	ㅋ
박소은	영앤리치앤플랜프리앤헨스헨스헨스	o—o	YEAHMIN
신예림	영우다♥	조영우 발냄새 장난없쉬	얼굴 만지지 마세요
엄지	눈이 크고 귀여운 사람	송파구 뜨자~!!	※엄지에게 아이돌을 보여주지 마세요※(금사빠)
엄지희	이재욱	♥	엄지희
이소영	키 크고 착한 남자	다음 생애는 김도연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ㅠㅠ	대하쳐돌이♥
이예은	내 남친 같은 사람♥	1주년 축하해♥	강서진한테 접근금지 당함
이윤청	유머러스하고 잘생긴 남자	@yun._chung_	배고르면 숨쉬기 힘들어함ㅠㅠ
전규원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귀여운 사람	설빙 맛있어♫	귀여운거 좋아!
정서원	토리	토리아 사랑해	볼 찢리지 마세요. 사랑니 뺨
조주원	즐리게 생기고 키 큰 사람	@won.1j	1일 1스벅
최지원	장기용 키에 고재현 귀여움을 가진 사람	나랑 축구 보러 대구 갈 사람	원규야 안사랑해♥
표지연	나랑 잘 맞는 사람	@pp_ji_yeon	표지표지
하은주	목소리 좋고 배고 잘하는 남자	@eunju6048	배고르면 물어요
허진아	미래가 같은 몸은 한승우, 얼굴도 한 승우같은 내 눈에 멋진 사람	충성	맨날 배고픔..
황이안	김치볶음밥 잘 만드는 남자	너♥	@lee_an_030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tong1318 이메일 : feelt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요약 설명을 보내주세요.

미(美)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강유진: TOP MODEL 유진이는 피부가 진짜 하얗다. 유진이가 수업 시간에 안경을 벗는다는 것은 곧 잔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기침소리 조지고 연락이 잘 안되며, 측근들에 의하면 취향이 독특하다고 한다. 텐션 한번 올라가면 절제불가. 통뽀 마니아라는 소문이...^^



강서진: 자칭 '손흥민 부인' 인 서진이는 별명이 '또띠' 다. 손흥민 선수를 진짜 진짜 좋아한다. 꿈이 통역사여서 중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알 수 없는 춤을 춘다. 서진이의 그루브는 전교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창문에서 매일같이 감성을 타고 있다.



엄지: 우리 반의 엄토그래피 사진을 정말 잘 찍어준다. 피부도 하얗고 빼꼼 같은 귀여움을 가졌다. 안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는 것 같다. 옷장벽이 소멸 직전 단계라서 가끔 특이한 포인트에서 혼자 옷을 때가 종종 있다. 수업시간에 리액션을 잘 해준다.



강지윤: 다리가 진짜 긴데 약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뽕뽕, 트윙티, 포치 등 온갖 캐릭터를 달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뼈저리게 아파통한다. 5반에서 엄지희를 케어하고 있다. 젤리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2봉지 이상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라이더자켓이 잘 어울린다.



신예림: 우리 학교 바디페인팅 모델 중 한 명인 예림이는 머리 길기로 구분할 수 있는 생똥이가 있다. 화장을 잘 하는데 특히 눈썹 그라데이션에 집착이 심하다. 조용 조용하지만 가끔 큰 소리로 웃을 때가 있다.



김현진: 우리 반의 당찬 (!) 체육부장. 배우 김도완의 약혼자라고 '주장' 한다. 뭐든지 열정적이어서 수업시간에 대담도 정말 열심히 한다. 수학 시간을 제외하고 수업 시간에 절대 쉴지 않는다!! 수려랑 매일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귀여워한다.



강채림: 민트초코를 엄청 사랑하는 채림이는 우리 반 대표 춤꾼 중 한 명이다. 노래 맞추기 게임을 할 때 뛰어난 실력을 보인다(진짜 잘함!!) 라이징스타 유튜브 채콤님이기도 하다. 엉뚱한 면이 없지 않다. 5반의 핸드폰을 담당하고 있다!(지각 한 번으로...)



강수려: 매사에 열심인 수려는 시험기간만 되면 미간이 잘 안 찌진다. ㅠ ㅠ 다리미가 필요할 정도.. 아니어서 같이 또랑 또랑한 목소리로 장난을 치는데 가끔은...(한숨)그래도 애는 착...하다. 현진아와 티격태격하면서 도 서로를 아끼려고 부르는 천생연분..



허진아: 미래의 군인이자 현재 김요한승우처들어. 체육할 때 피구시간이 되면 피해자가 속출해서 허.피(허진아한테 피해입은 사람)라는 말이 돌았다. 만성비염으로 엄지와 함께 계속 코가 빨개지도록 코만 푼다. 우리 학교 유일무이 체육 동아리의 부장님이다.



표지연: 귀여운 부반장. 귀엽다고 말하면 인정 안 하려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표지'라고 불린다. 교사가 꿈인 친구답게 침착한 목소리와 말투를 가졌다. 5반에 워낙 포라이^^가 많아서 버거워 보일 때가 많지만, 책임감 만땅인 표지...미안해 ㅠㅠ



이예은: 눈이 매우 크고 허리가 얇다. 입에서 뽕뽕글글 김(?)이 나온다고 한다.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며 머리가 엄청 빨리 자란다. 삼파향이 좋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있다.^^



김채현: 채현이는 재혼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규원아와 친구들 덕분에 체험한 것 같다.^^ 롯데자이언츠의 김원중 선수를 진짜 좋아한다. 스탠다드 푸들과 같은 귀여움을 보유중. 매점을 진짜 많이 간다. 축제에 특별출연 예정이 다.(보러 오세요~)



황이안: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꿈을 가진 이안이지만 심심하면 수업시간 교과서 필기에 열중한다. 마냥 해맑은 강아지 같은데 손이 진짜... 많다. 이걸 맞아봐야 아는 손맛이다. 웃으면서 잘 때리는 이안은 오늘도 물건을 떨어뜨리는 앞자리 친구 덕에 고통 받는 중이다.



하은주: 늦는 게 컨셉^^ 흥부자에 끼부자다. 사진 포즈 하나하나가 프로. 옆태가 예쁘다. 배에 미쳐서 PC방에서 자주 목격된다. 구수한 말투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생님들과도 사이?가 좋다. 최근 앞머리를 내려 귀여움이 추가~ 배가 고프지 친구들의 볼따귀를 깨문다.



이윤청: 세상 동고발랄한 친구다.^^ 매우 발랄하다. 갈색 후리스를 (너무) 좋아해서 겨울이 다가오면 늘 입고 다닌다. 우리 반의 몇 안 되는 여자리 중 한 명이다. 본인이 PHS의 애제자라고 주장한다. 늘 선생님의 말씀에 애정크를 표한다.



최지원: 이름이 감자고 별명이 최지원이다.^^ 한없이 느린 걸음의 발걸음만 보고 알았다가는 큰일난다. 태권도 유단자애. 적당한 폭력성까지 가미되어 최고의 파이터로 알려져 있다. 겁도 없이 뽕뽕다가는...(수려야 팬찮!) 그래도 감자는 귀엽당.ㅎ



전규원: 경해 유일무이 필통 기자.. 깨어있을 때는 늘 저세상 텐션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감당 못 한다. 하지만 거의 안 깨어있기 때문에 괜찮다. 수업시간=수면시간이지만 나를 얼리터서서 모두를 미스테리에 빠지게 한다. (G)-DLE의 열렬한 팬이며, 심각한 '셀고'라고 한다.



조주원: 5반 원부 패미리의 시초 주원부. 수업시간엔 규원, 은주와 함께 저세상 텐션을 맡고 있다. 1일 1스벅은 기본이며 최근 스타벅스 골드 카드를 획득하여 하이텐션이다. 느끼한 음식을 싫어하여 급식에 나오는 크림 파스타 등을 규원에게 제공해준다. 고마워 주원부♥



이소영: '무신사' 에서 모델 할 것 같은 친구. 패션 감각도 남다른데 안 어울리는 옷이 없다. 독특한 양말을 즐겨 신는다. 피부도 하얗서 볼이 참쌀떡 같다.^^ 웃을 때 옆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조심!) 오늘도 감자와 규원아는 소은이를 교대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놀고 있다고 한다.



박소은: 이국적인 미모를 자랑해. '외국인 니' '스페인 딸기 할머니' 등의 별명을 소유중. 가끔 예민하지만 애는 착한 것 같다.^^ 웃을 때 옆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조심!) 오늘도 감자와 규원아는 소은이를 교대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놀고 있다고 한다.

[취재/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동아리 탐방] 삼현여고 댄스동아리 블랙십

다재다능한 끼로 뭉친 무대 위 멋짐 폭발, 삼현의 악동 블랙십!



〈블랙십 동아리 차장 정선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삼현여고 댄스동아리 블랙십에서 차장을 맡고 있는 정선하입니다.

Q. 블랙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삼현여고의 댄스부로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고 있고요, 학교축제 준비도 열

심히 합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공연섭외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Q. 동아리명이 인상적인데 블랙십은 어떤 뜻인가요?

A. 블랙십(black sheep)의 사전적 의미는 골칫덩어리, 말쑥꾼인데요. 악동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배들에게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저희 삼현여고 교복이 한복이라 아무래도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여성스럽고 단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큰데 그것을 깨는 확실하고 인상적인 작명을 고민하다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Q. 활동을 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은?

A. 정기적인 공연도 있고 초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전문공연팀이 아니니 늘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관객 반응도 좋고 저희 스스로도 만족스러울 때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공

연 모습을 뒤에 영상으로 확인할 때 기대한 것보다 잘했다 싶으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Q. 블랙십에 들어온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중학교 때부터 댄스동아리를 해왔던 친구들도 있고 춤이나 예체능 쪽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Q. 블랙십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A.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면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하고, 주말이면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해 계속 춤 연습을 합니다. 안무도, 음악도, 의상도 저희 동아리 회원들 스스로 구상하고 준비하죠. 혼자 아니라 다 같이 같은 목표를 위해 땀 흘리고 또 그 결과를 확인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후배간의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Q. 댄스공연을 보면 음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던데?

A. 저희가 어떤 안무를 잘 소화하느냐가 중요하죠. 선배들이 했던 안무와 곡을 참고해서 비슷한 분위기로 곡을 선정할 때가 많습니다.

Q. 블랙십 활동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A. 다른 건 몰라도 공연을 앞두고 연습시간이 촉박할 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무대라도 그 위에서 공연자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Q. 댄스 동아리는 회원을 뽑을

때 언제 외모가 중요할 것 같은데?

A. 아니요. 춤은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게 반복해서 자기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혼자 아닌 군무로 완성해야 하잖아요. 또 반복이죠. 그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열정 만땅 친구들은 꼭 블랙십과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내년은 회원도 많이 뽑고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감!

A. 진주의 3대 축제중 하나인 삼현축제, 12월 20일 열립니다.^^ 당연히 저희 블랙십이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이 보러 와 주세요! 저희 공연 말고도 패션동아리 엘르 등 멋진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응원해주시고 함께 즐겨 주세요.

[취재/ 진서영(삼현여고1)기자]



〈3월에 있었던 청수 첫 인증식〉



〈올해 가을에 다녀 온 동아리 소풍〉



〈삼현여고 플레이리스트 공연〉

[클래스&클라스] 대아고 2학년 6반의 클.라.스!

아침, 점심, 저녁 자투리시간에 무조건 자율학습을 하는 반이 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듯 학생들에게 시간은 어쩌면 그보다 소중한데 학교 수업, 야간자율학습, 학원 등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잠잘 시간도 줄여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익숙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데 시간을 만들어 내

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반이 있다는 소문이 돌린다.

그런 반이 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일찍 등교해야 한다. 점심시간 마치고 20분 전 교실에 들어 와야 한다. 저녁 석식을

먹고 30분 일찍 또 교실에 모인다. 왜? 놀랍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이런 자투리 시간을 자율학습시간으로 활용하는 반이 있다. 대아고 2학년 6반이다. 사실이라면 정말 클라스가 다른 클래스가 아닐 수 없다.담임

선생님이 제안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자투리 자율학습으로 자율학습 도움시스템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을 법도 한데 의외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반일지 무척 궁금해진다.

담임
이영조 선생님



자율학습 도움
시스템?

"저는 늘 담임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강조합니다. 학교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아침, 점심, 저녁시간입니다. 저희 반은 8시 10분까지 등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9시 수업시작 전 50분의 시간에서 명상과 조례를 제외하면 30분 정도 개인공부를 할 시간이 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십 여분 정도가 되는데 친구와 얘기하거나 매점을 가거나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더라도 수업시작 전 한 20분 정도는 자습할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에게도 7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30분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반은 다른 반 학생들에 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이 만들어 집니다. 그 자투리 시간이 1년이 모이면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믿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잘하는지 서로 점검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학생들의 불만?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담임 할 때마다 우리반 학생들에게 <우리반은 특별하다. 우리반은 다르다. 너희는 1년 후 헤어질 때 우리반 정말로 좋았다. 자랑스러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과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그냥해라' 가 아니라 저는 늘 '같이하자'라며 진심으로 학생들의 일상을 공유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나 반감 표출을 사라졌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일 겁니다. 언제든지 얘기하고 또 들어줍니다. 또 한 번씩 같이 산에 간다던지 볼링을 치거나 축구경기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자투리시간 효과?

"물론 성격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성적 뿐 아니라 반의 결속력, 자신들끼리 끈끈한 우정도 만들어 가고 같은 반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과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 학생들의 생각은?



Q. 자율학습도움시스템 어떻게 활용하나요?

A. 정수훈 : 시험기간일 때는 부족한 시험공부를, 시험이 끝나면 수행평가나 보고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A. 최정우 : 부족한 수학, 수학을 제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A. 권도훈 : 영어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투리 시간에는 무조건 영어를 봅니다. 같은 시간 반복하는 공부가 효과적입니다.

Q. 솔직히 불만은 없나요?

A. 정수훈 : 담임선생님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 이것. 공부하는 하고 싶을 때 해야한다는 저만의

철칙이 있는데 반 강제라 생각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A. 최정우 : 저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어떨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니까, 선생님이 나서서 이러한 공부할 분위기를 잘 조성해주시면 결국 저희에게 도움이 될거니까요.

A. 권도훈 :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Q. 혹시 다른 반이 부럽지는 않나요?

A. 정수훈 : 가끔씩은 친구들이랑 맘껏 놀 수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A. 최정우 : 저는 다른 반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반은 특별한 것 같아요.

A. 권도훈 : 저도 다른 반이 부럽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장난치고 노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부럽단 생각보다 이전 우리반의 특별함을 느끼고 왠지 뿌듯해 하기도 합니다.

[취재/ 정은령(진양고2), 하강영(대아고2)기자]

[맏칸년맏반-신청] 진주기계공고 1학년 5반편

기공의 엘리트만 모였다! 명문 건설 1학년 5반입니다

우리 단합 최고 1학년 5반 명문 건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노동이면 노동(?) 뭣하나 빠짐 없이 선두를 달리는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1학년 5반을 소개 합니다!

1학년 5반의 위인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용상 선생님

다른 교직원분들과 교장 선생님도 인정한 기공에서 가장 바쁜 선생님. 그만큼 능력 있고 실력을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선생님이시다. 항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뼈 아픈 상처인 자신의 적은 머리술을 예로 들며 학생들에게 모발 관리에 힘써야함을 몸소 보여주시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까지 책임지신다.



백두현 교생선생님

10월 달, 교생 선생님이 기공을 찾아오신 선생님이 한달간 건설과와 함께하시는 축복 받은 선생님! 훈훈한 외모와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느껴져서 금방 5반과 한 몸이 되었다. 인기 만점 교생선생님이시다.



친구들 이상형 및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권민수	박보영이나 벤이랑 비슷한 귀엽고 안경 잘 어울리는 여자	badu_dd...u 여기로 DM♥
김규태	밝고 귀여운 여자	롤 할 여자 구함
김동진	텐션 미친 여자	롤 할 여자!!!(2번 싫다 친구)
김시우	키 별로 안 큰 귀여운 여자	나 알면 연락 ㄱ
박성민	세상 모든 여자	010-7137-8792
박성현	박은우	P_s_h_17
박종민	숏 앤 큐트 영 앤 리치	jongmin_p_17 기다릴게요 DM♥
백경수	화장 연하고, 안경 잘 어울리고, 긴 생머리	내 키 165cm 원원해줄 여자 구함
백형준	애교살 있는 귀여운 여자	baik_hj
서령오	호른 부는 여자♥	tuba...seo
안성인	돈까스 좋아하는 여자	돈까스 좋아해요?
이민재	키 작고 털털한 여자	카트 할 여자 구함 닉 : 돼지바게노맛
이재운	착하고 귀여운 여자	페북 재운 연락 ㄱ
이종민	게임 잘하는 여자	피시방 같이 갈 사람
이태현	한연우	대따 사랑해♥
이홍경	귀여운 여자	요들 써라
임인수	나보다 키 작은 여자	190cm입니다
조민승	이쁜 여자	인스타 alstmd2302
한동민	싸움 잘하는 여자	X
화제현	우리 엄마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됨^^	hwajehyeon

아주 특별한 우리 반 이야기!



평범한 소풍은 가래 우리 반만 떠나는 특별한 자전거 여행이 있다!

딱 한 반뿐인 기공 건설과에게는 소풍 여행지 또한 자유롭고 특별했다! 식상한 소풍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오래 기억에 남고 특별한 추억이 될 소풍을 위해 자전거 여행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힘들긴 뒤지 게(?) 힘들었지만 건설과의 기본인 체력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과 색다른 즐거움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던 아주 특별한 소풍이었다.^^

★중학생들을 위한 건설과 소개 타임★



진주기공 건설과는 서부경남 '유일'의 건설계열 학과입니다! 건설과의 자랑으로서의 첫째, 공채반을 운영해 매년 공무원, 공기업 취업생들을 배출하고 높은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건설과 수업은 건설 실무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학교 내에서 우리들 컴퓨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기초부터 완성까지 학생 주도적인 계획과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건설과 내에서 굴삭기, 지게차, GPS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 보고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진주기공 건설과는 한 반 뿐이라 3년 내내 같은 친구들과 동고동락합니다. 다른 학교나 반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반 전체가 가족 같은 느낌'으로 특별한 학창시절, 특별한 친구들을 만들어 줍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건설과에 진학한 것을 후회 하나도 없었을 때, 한결같이 '아니요' 라고 대답 합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이 많을 중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주기공의 건설과에서 자신의 꿈을 비추어 보길 강력 추천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똑같이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건설과 5반의 바람입니다!

명문 건설 멋쟁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권민수:덩치에 비해 하는 행동이 귀엽고 웃도 잘 입으며 얼굴도 호감형이다. 규태랑 자주 티격태격 하지만 알고 보면 둘이 가장 친한 사이이며, 덩치가 커서 씨름도 잘하고, 성격이 순하고 착해서 친해지기 쉽고, 가끔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 버리고 싶다.



김규태:외모는 러시아 혼혈인으로 피부가 매우 하얗지만 토종 한국인이며, 이목구비가 뚜렷해 '자리아'의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살 빠지면 존잘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평가. 하지만 정작 자신은 살을 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박성민:엄청난 친화력으로 친구들에게 인기. 현재 반장과 집일 비율이 9.9:0.1이다. 매우 논리적이고 재미있는 입담의 소유자로 추진력이 강하다. 사복을 좋아해 교복 입은 모습을 보기 힘들고 공부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점수는 잘나온다.



박성현:우리 반 대표 작업반장. 막노동의 타고난 몸을 지녀, 실습 시간에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 공부 빼고 다 잘하는 만능이다. 헬스를 끊은 뒤, 살이 붙었지만, 다시 운동을 시작하여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박종민:기공의 자랑스러운 펜싱부의 자칭 1학년 대장으로, 이번 전국 체전에서 단체전 2등을 수상! 하지만 반에선 운동부라는 것을 핑계로 매일 사복을 입고 수업시간에 눈 떠 있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 조례 시간에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 인물 중 하나다.



백경수:아담한 키에 비해 얼굴은 나이에 걸맞다는 평가다.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친다. 매우 출세적이지만 미워 할 수 없는 캐릭터로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평소 성현이와 자강 두친의 본모기를 보여주며, 매일 투닥댄다.



서령오:중학교 때부터 관악부 생활을 한 덕인지 1학년 관악부 중에서도 top!! 음악 선생님과 비교될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건설과 친구들과 달리 튜바 연주자로서의 길을 꿈꾸며 서클로 레슨과 다수의 음악회를 다니며 음악에 올인 중이다.



백형준:큰 키에 걸맞는 부러운 비율과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따뜻한 학생. 선생님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한다. FPS 고인물이며, 그 예로는 오버워치에서의 티어가 그랜드 마스터다.



안성인:우리 반에 정신적 지주다. 그러나 귀여운 얼굴과 출세대는 성격의 소유자. 어느 교과 선생님과도 터놓고 지내는 미친 친화력을 지녔다.재운이와 항상 붙어 다니며 환상적인 케미로 반의 분위기를 살리고 여러 의미로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민재:언제나 반장의 옆자리에서 반장을 행복(?)하게 한다. 옷을 때면 특이한 웃음소리를 보는 사람까지 즐겁게 하는 해피한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다. 공채반에서 공기업을 꿈꾸는 친구로 공부 시간에 언제나 NCS에 매달려 있다.



이재운:우리 반 대표 멀치다. 보기 힘들고 이쁜 다리를 가지고 있다. 유일하게 사천에 거주하고 있다.자신이 학교 선생님께 7개월 동안 잡혀 살아 자칭 추노인이라고 자부한다. 선생님들이 비슷한 체격으로 경수와 재운이를 헛갈릴 하는데 서로 기분 나빠한다.



이종민: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롤을 하지만 학습량에 비해 성적이 우수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그러나 대표 롤중 이미지를 알고 있다. 티어는 꽤 높은 편이며 게임만 해서 그렇지 꾸미면 잘생겨질 인물로 꼽힌다.^^



이태현:1학년 건설과 반장이시다. 성격이 차분하고 선생님도 인정한 진지함을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 왕년에 태권도 선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그냥 권력 골 등 알파카 가끔 보여주는 발차기는 볼 때마다 놀란다. 모범생다운 면모로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중이다.



이홍경:우리 반의 공부 1등을 맡고 있었으나 룰에 눈을 뜬 이후 지금은 반장에게 자리를 뺏겼다.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게임에 열심이다.그러나 여전히 상위권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반에서 거의 선생님 역할을 담당한다. 성격이 해맑고 순수한 편이다.



임인수:학교 최장신이다. 그 키는 무려 190cm 이상으로 추경된다. 허나 큰 덩치와 외모에 비해 완전 대비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며, 잠이 많고 준프로에 준하는 볼링 실력을 지니고 있다. 공부도 잘하는 거인이다.



조민승:대표 잠만보로, 자칭! 얼굴 마담이다. 항상 웃는 모습과 쾌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자격증 필기 시험에 항상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밤늦게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다 필기시험을 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 마음 고생이 심했다.



화제현:기분이 좋을 때 엄청난 하이 텐션을 지닌 친구다. 늘 잘 맞는 웃음으로 선생님들과도 편하게 대한다. 영어실력이 월등해 영어 시간은 거의 독무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놀라게 한다. 랩을 좋아하고 잘하며 악세사리를 좋아한다.

[씨네통통] 82년생 김지영 KIM JI-YOUNG, BORN 1982, 2019

누구나 김지영일 수 있는 우리 시대를 담은 우리 모두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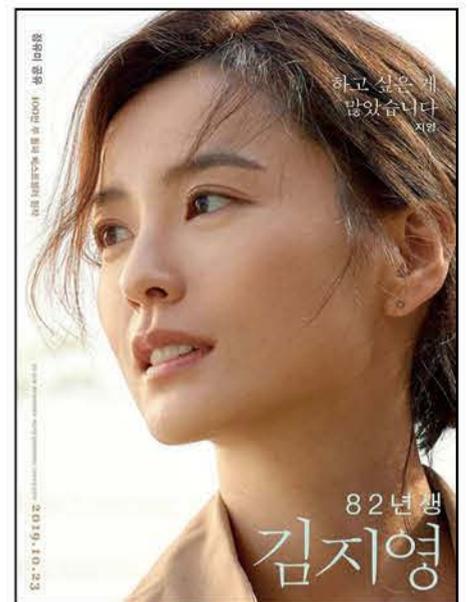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

<영화 줄거리>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 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 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 은 이런 '대현' 에게 언제나 "괜찮다" 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장르 : 드라마
→러닝타임 : 118분
→개봉 : 2019. 10. 23. 개봉
→감독 : 김도영
→출연 : 정유미(지영), 공유(대현), 김미경(미숙)
→등급 : 12세 관람가
→흥행 예매율 1위, 박스오피스 1위 6일째 126만 돌파

롯데시네마 현장투표 10점 만점에 만점 42.1%

한 번 불만해 이상 긍정평가 96.7%



평가	여성	남성	전체 관객
10점 만점에 10점	50 (46.7%)	13 (30.2%)	63 (42.1%)
강력 추천	40 (42.1%)	17 (39.5%)	62 (41.3%)
한 번 불만해	10 (9.3%)	10 (23.3%)	20 (13.3%)
그저 그렇다	2 (1.9%)	3 (7.0%)	5 (3.3%)
합계	107 (100.0%)	43 (100%)	150 (100%)

10월27일 주말 일요일, 진주 롯데시네마 중앙점. 현장 관객 평가는 총 15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다. 개봉 첫 주말 입소문 타인지 여성관객들이 많았지만 연인끼리 가족끼리 함께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엄마와 딸이 나란히 영화를 보고 나오는 장면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영화를 보고 난 직후 현장 관객투표는 조금 놀라웠다. '한번 불만해' 이상의 긍정 평가가 무려 96.7%였다. '돈이 아깝다' '절대 보지마' 부정 평가는 투표에 참가한 150명 중 단 한 표도 없었다. 더구나 긍정평가 중에서도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내린 관객들이 42.1%로 예상을 뛰어 넘는 호평이었다.

일부에서 '페미영화' 라는 등 평점테러가 일어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남성 관객들의 관람평 역시 여성관객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영화일 뿐이다.

정유미와 공유의 3번째 케미!

함께 한 영화들 흥행성공 3타수 3홈런?



배우 정유미와 공유는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 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부산행' , 그리고 올해 '82년생 김지영' 으로 세 번째 호흡을 맞췄다. 두 배우의 케미 덕인지 모두 흥행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순제작비 25억 원 '도가니'는 466만2926명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손익분기점 150만 관객을 상회하는 기록이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 성폭력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문제를 이슈화 시키기도 했다. '부산행' 역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건 물론, 1156만7561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많은 작품을 함께 한 만큼 결혼설까지 나돌 정도로 루머도 많았지만 '두 사람의 속사' 측은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며 '루머를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에 합의를 선처 없이 강경대응 할 것' 이라고 강한 입장을 내고 있다.

나도 평론가, 즉석 한줄평!

눈이 떠는 한줄평 '김다혜는 합들지 마라' 여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본 남자친구가 몰래 붙여 놓고 간 포스트잇 속 글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누구나 함께 노력해야 한다.

- ▷ 한 사람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 ▷ 현실은 영화보다 더 배려 받지 못합니다.
- ▷ 영화 보는 내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라서 너무 공감되고 엄마의 회생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 ▷ 김다혜는(여자 친구인 듯) 합들지 마라.
- ▷ 여자의 삶 그 자체.
- ▷ 뭐지? 눈물이 나는 것은 무의식중에 공감 100%(칠암동 오서진님)
- ▷ 94년생 박지영이 공감하고 갑니다.
- ▷ 모든 사람들이 보았으면, 알았으면 합니다.
- ▷ 극히 일부이지만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야 하는 영화.
- ▷ 영화 내내 어머니 생각에 눈물 마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울다가 화장 지워진 영화는 처음이네요.(삼현여고 2학년)
- ▷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고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경해여중 주신희)

▷ '82년생 김지영' 을 책으로 먼저 봤었는데 책의 내용 중 몇 부분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웠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더 재미있었고 슬펐다.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 해서 더 공감이 잘 되었다.(진주여고 이유진)

▷ 영화 보는 내내 오열했어요. 그래도 이 영화가 현실보다는 더 나은 삶이기도 해서 더 씩씩했어요.(진주여고 2학년)

▷ 영화 꼭 보세요. 진짜 너무 슬퍼요.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경해여중 강민서)

▷ 친구들과 보러왔는데 엄마 생각나고 슬퍼요. 책이 유명해서 봤는데 잘 봤어요(경해여중 2학년 장영서)

깜짝 현장 인터뷰

정예슬(대학생)
"김지영이 외할머니로 빙의해서 엄마를 위로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일 인상 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도연(대학생)
"김지영의 어머니가 김지영에게 자신이 아이를 봐줄 테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김지영의 어머니도 지금의 김지영처럼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자신의 딸 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회생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 필통기자의 관람평 >

▶강은영(중앙고1)기자
한 뎀 능력 있는 사원으로 인정받았던 '김지영'이 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고 희생해야만 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김지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씨'가 아닌 '○○○엄마'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김지영'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삶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김지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당장 풀릴 것 같지 않은 질문을 안겨준 영화이다.

▶이영광(진주기공1)기자
처음에는 이 영화가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뒤 나의 조건반사 같은 그 생각이 급 부끄러워졌다. 기사 취재 때문이라도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여성들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했다. 난 남자였기 때문이다. 남자라는 이유로, 또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있다면 가까이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 가능한 영화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연인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 한다.

[취재/ 강은영(중앙고1), 이영광(진주기공1)기자]

[SNS 맛집 탐방] 돈가스 전문점 1440수제이야기

하루 1440분의 비밀 골목식당 돈까스가 이런 맛 아닐까요?

돈까스는 청소년들에겐 빼 놓을 수 없는 최애 식단이다.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늘 먹음직스럽게 등장하는 돈가스... 방송 볼 때마다 진주에도 맛있는 돈가스집이 어디 있을까 수소문하곤 한다. 진주에도 돈가스 전문점이 많이 있지만 소스까지 완벽히 수제 돈가스 집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 본 진주 칠암동 1440수제이야기!! 그 이야기속으로 고고!

왜 1440일까?



가게 외부 모습이다. 칠암동 미르치과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색 건물이 보인다. 벽면은 건물 내부가 잘 보이는 유리로 되어있어 바깥에서도 가게의 깔끔한 인테리어 구조를 볼 수 있다. 간판엔 1440이라는 숫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여기서 퀴즈, 음식점 이름인 1440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루는 24시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다. 여기서 판매되는 돈가스와 가라아게를 만드는 재료, 즉 고기를 하루 24시간(1440분) 동안 숙성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1440 수제이야기라고 지었다고 한다.



경남 진주시 강남로 189번길 24-1(☎ 055-755-1440)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마지막 주문은 9시 30분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독특한 인테리어!



가게 내부 모습이다. 벽에 여러 미술 작품이 걸려 있고 군데군데 화분과 식물을 배치해두어서 그런지 상큼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주는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이 놓여있고 노랗게 칠해진 벽과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아주 분위기 좋은 식당이다.

전체적으로 컬러풀하고 세련된 느낌이다. 노란벽에 큼직큼직한 화분으로 플랜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청량감 있는 분위기다. 벽면에는 감성사진들도 있다. 아가지기한 소품들도 이뻐서 돈가스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한다.

2인 테이블부터 4인 테이블, 6인 테이블까지 다양한 좌석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명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도 어른들은 맥주를 한 잔 하기도 분위기가 딱이다. 참 독특한 의자가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유명 작가가 만든 신제품이던데 의자가 마구마구 돌아간다.^^



위생상태가 좋은 40곳을 선정

가게 벽 한쪽에는 표창패가 붙어있다. 1440 수제 이야기는 진주시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책 평가에서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으로 선정되었다.(진주 시내 음식점 약 5000곳 중 친절,

대표 음식을 직접 먹어 보았다

1440수제 돈가스 정식



짬 1440수제돈가스정식이 나왔다! 등심돈가스에 마늘플레이크가 얹어져 있다. 상큼한 샐러드와 직접 만든다는 소스! 미역이 들어간 살짝 매콤한 장국과 느끼함을 잡아줄 장아찌에 꿀과 요구르트로 디저트까지 풀셋팅이다. 돈가스 정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인 돈가스, 샐러드, 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스! 일반적이지 않는 묽은 소스인데 누룽지의 구수한 맛과 파인애플의 달콤한 맛을 살려서 만든 100% 수제소스라고 한다. 돈가스는 그냥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곳만의 특제소스에

자루소바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자루소바(메밀국수)다. 자루소바는 메밀면과 쓰유(면을 담가먹는 간장)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소바장이 간이 적적하고 아주 시원해서 더운날에는 정말 최고인 메뉴다. 면도 적당하게 탱글탱글해서 식감도 좋다.

가라아게 & 샐러드



마지막으로 나온 음식은 수제 찹쌀 가라아게&샐러드였다. 이 메뉴는 찹쌀과 닭고기를 넣어 만든 가라아게와 샐러드 그리고 두 종류의 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찍어드시면 더욱 부드럽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소스는 사장님께서 100% 직접 만든다고 한다.

<필통기자단 맛평가>

강인원기자 ★★★★★

24시간 숙성의 정성이 들어간 만큼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었다. 기름에 잘 튀겨져 먹자마자 튀김옷의 바삭함이 느껴졌다. 일반 돈까스와 달리 고기가 두껍고 쫄깃쫄깃하고 튀김옷은 바삭해서 아주 좋았다. 같이 나온 파인애플과 누룽지가 들어간 돈가스 소스는 달콤하면서 고소했다. 소스도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색다른 맛이였다. 몇 조각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속이 고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돈가스가 잘려져 나와 먹기 편해 좋았다. 정식이다 보니 밥, 샐러드 등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전시은기자 ★★★★★

정병훈기자 ★★★★★

<필통기자단 맛평가>

전시은기자 ★★★★★

메밀면을 소바에 담겨 먹는 국수이다. 소바와 같이 나오는 무, 와사비, 쪽파를 취향에 맞게 넣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개인적으로 와사비와 쪽파를 넣는게 맛있었다.) 탱글탱글한 메밀면을 차가운 소바에 담겨먹으니 메밀면이 더 탱글한 느낌이었다. 육수는 깔끔하고 시원했고 무와 와사비를 살짝 넣어먹으니 감칠맛 있고 식감이 좋았다. 가라아게, 돈가스 등의 메인메뉴를 시킨다면 같이 시킬 사이드메뉴로 적극 추천한다.

강인원기자 ★★★★★

정병훈기자 ★★★★★

<필통기자단 맛평가>

정병훈기자 ★★★★★

우리가 먹은 음식 중 가장 비싼 메뉴였지만 값어치 이상의 맛이였다. 돈가스고기 보다 더 부드러웠고 찹쌀이 들어가서 그런지 쫄깃함이 느껴졌다. 고기에 간이 되어있어 굳이 소스에 찍어먹지 않아도 맛있었다. 같이 나온 샐러드도 여러 종류의 채소가 들어가 있었고 특히 샐러드에 사용된 소스가 기억에 남았다. 튀김집질이 매우 바삭했고 안에 찹쌀이 들어가 식감이 쫄깃해서 너무 맛있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였다.

강인원기자 ★★★★★

전시은기자 ★★★★★



사장님과의 잠깐 인터뷰

Q1. 메뉴별 맛있게 먹는 법이 있나요?

A. 돈가스의 경우는 100% 수제로 직접 만든 소스에 돈가스를 완전히 푹 담궈서 드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러면 돈가스 안쪽까지 소스가 스며들어서 더욱더 깊은 맛과 풍미를 느끼실수 있습니다. 찹쌀 순살 치킨(가라아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가게의 가라아게와 차별점이 찰떡과 같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쫄깃함을 생각해서

서 머스타드 소스나 와사마요(와사비+마요네즈)소스에 찍어 드시면 더욱더 풍부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루소바와 돈가스 샐러드의 경우는 저녁에 튀김과 같이 돈가스를 먹기 조금 부담스러울 때 가볍게 먹기 좋습니다. 소바와 샐러드의 경우는 야채와 곡류(메밀)의 비율이 높으므로 소화가 힘든 노년층이나 유아기 아이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Q2. 1440수제 스토리의 가장 큰 매력은?

A. 매력이라...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럽네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초기 오픈할 때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때부터 오다가 결혼한 후 아기와 함께 오시는 손님, 처음엔 혼자만 오다 점점 가족들, 지인들과 함께 오시는 손님등등 꾸준한 시간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의 가장 큰 매력은 오랜시간 동안 손님들과 함께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Q3. 다른 메뉴를 개발하실 계획이 있나요?

A.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는 메뉴는 돈가스 덮밥과 돈가스 샌드위치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돈가스와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개발 연구중에 있습니다.

[필통뮤직차트] 수능금지곡 1위 링딩동

이것만은 듣지마! 수능금지곡!

다가오는 11월, 11월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로 고3, N수생들의 수능시험이 있는 달이다. '수능금지곡'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가? 수능금지곡이란 수능시험을 볼 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가사로 시험공부나 시험을 볼 때 방해하는 노래를 뜻한다. 그래서 이번 필통에서는 경남예고 2학년 남학생, 선명여고 2학년 여학생들, 그리고 필통기자단 남.여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수능금지곡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1위는 링딩동(2009) - SHINEE

수능금지곡 1위는 놀랍게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이니의 '링딩동'이었다. 특유의 기계음과 반복되는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딩디기...'으로 음악을 들은 후에도 계속 맴들게 된다고 한다. 사이니의 노래 '링딩동'은 "판타스틱, 엘라스틱"과 같이 반복되는 후렴구가 머리 속에 무한 반복되며 집중력을 잃게 하는 중독성을 지닌 곡으로 유명하다.

2위부터 4위까지는 신기하게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세 곡을 추천했다. 순위가 바뀌었지만 같은 노래를 꼽았다. PICK ME의 반복

으로 유명한 PRODUCE 101의 'PICK ME', 흔히 '암울맨'으로 알고 있는 SS501의 'U R MAN' 그리고 최근 굉장히 유행했던 중독성 있는 동원참치 CM송까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능금지곡으로 강추해 주었다.

이 중 노래가 아닌 CM송이 눈에 확 띈다. 배우 조정석과 걸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을 모



[최강수능금지곡]

순위	경남예고(남)	선명여고(여)
1위	링딩동 (9)	링딩동 (17)
2위	PICK ME (7)	U R MAN (7)
3위	U R MAN (5)	동원참치 CM송 (6)
4위	동원참치 CM송 (4)	PICK ME (4)
기타	소리소리, Bad Guy, 루키, 아모르 파티, 진진자라, 던칠까말까 등	뽕뽕, 짐살라빔, 빨간맛, 아모르파티, 아놀자CM송 등



델로 제작한 동원참치 CF는 공개 3달여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에서 누적 조회수 3000만회를 돌파했다. 올해 국내에서 공개된 모든 CF 가운데 합산 누적 조회수 1위다. 조정석과 손나은이 함께 부른 '동원참치 송'은 중독성 있는 가사와 리듬으로,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해의 수능금지곡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동원참치 송은 인기로 힘입어 소비자들이 직접 제작한 락 버전, 국악 버전, 피아노 버전을 비롯해 0.5배속이나 4배속 영상부터 1시간 반복 영상 등 유튜브 기준 100여 건이 넘는 리메이크 영상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런 수능금지곡에 대한 대처법은 있을까? 공부의 신 강성태는 한 라디오 방송

에서 "수능에서 귀에 노래가 맴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대처법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다. 귀에 벌레가 들어간 느낌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해결책은 껌 같은 것을 씹는 것이다. 만약에 상황이 어렵다면 그래서 귀마개를 끼거나, 뽕기를 소리 내서 읽으면 사라진다."며 꿀팁을 전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치러진다. 오랜 시간동안 준비해온 많은 것들을 그날 모두 보여줄 수 있게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능 끝나는 날까지 만이라도 위의 곡들은 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취재/ 김민수(경남예고2), 민세연(선명여고2)기자]

[필통 번역실] '독도는 우리땅' 을 영어로 불러봐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땅 독도!

이번에 필통 번역실에서 선택한 노래는 '독도는 우리땅'이다. 팝송이나 다른 나라 노래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래를 영어로 영작해 보았다. 이유가 있다. 바로 매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날이다. 필통도 독도를 생각하며 영작 이벤트를 통해 진주 청소년들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높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들어 '무주지' 독도를 영토화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이다. 그러나 이는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25일 칙령(제41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앞에서 무너진다. 셋째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가 일본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의견은 전적으로 일본 측 자료에 의존했다.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미국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못 박지도 않았다.(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거짓주장 독도의 진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무시와 무대응도 방법이다. 그러나 정상적 한·일관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자면 일본의 거짓 주장을 똑똑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독도가 예부터 우리 영토라는 사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지도' 등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한다. 심지어 일본 문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극소수 자료를 들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거짓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예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고유영토론'이다. 일본은 근거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64)를 제시한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시한 일본 기록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일본 육군 발행 '조선전도' (1876)에는 독도가 조선 영토로 돼 있다. 둘째는 1905년 시마네현 주민의 청원을 받아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정부는 1948년 독도에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1'의 주소를 부여했다. 당시 일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독도에는 한국 주민이 거주한다. 상주 경찰과 공무원이 독도를 지키고 있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다. 매년 10만명이 찾는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땅.' 이것이 독도의 진실이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 (팔칠케이라고 읽는다) 87k along the southeastern shipping line of Ulleungdo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a lonely island, The home of birds,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No matter how he insists it's his land

독도는 우리땅 Dokdo is our land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Dokdo-ri, Ulleung-eup, Ulleung-gun, Gyeongsangbuk-do

동경132 북위 37 (백삼십이, 삼십칠 이라고 읽는다) Eastern 132 Northern latitude 37

평균기온13도 강수량은 1800 (천팔백 이라고 읽는다) Average temperature, 13 degrees, precipitation, 1800

독도는 우리땅 Dokdo is our land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Squid, webfoot octopus, cod, Mussels, barnacle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감성도 Choi Jong-deok, Resident Registration, and village foreman Kim Seong-do

19만 평방미터 799-805(칠백구십구에 팔백오 라고 읽는다) 190,000 sq. meters 799-805

독도는 우리땅 Dokdo is our land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Usanguk, Isle of 13 Years, King Jijeung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Sejong Silokji-ri Ulijn-hyeon, Gangwon-do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조선 땅 Hawaii is the American Daemado is the land of Joseon

독도는 우리땅 Dokdo is our land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없는 땅이라고 Righ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land was deserted."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If you insist, we will be in a lot of trouble.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Isabu who is General of Silla laughs underground.

독도는 우리땅 Dokdo is our land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 (팔칠케이라고 읽는다) 87k along the southeastern shipping line of Ulleungdo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a lonely island, The home of birds,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No matter how he insists it's his land

독도는 우리땅 Dokdo is our land

No matter how (복합관계부사) : 아무리 ~ 하더라도 Right after : ~직후에 Insists : 우기다 Average temperature : 평균기온 Precipitation : 강수량 Northern latitude : 북위 If (조건절) : 만약 ~ (이)라면 {의미가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부사절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쓴다.}

[취재-번역/ 배재현(사대부고1)기자]

초·중학생 때 학교에서 '독도는 우리땅' 플래쉬몹을 했었다. 야영에서 가사를 외우고 부르면서 아침조깅을 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노래에 대한 설명을 조사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고 아름다운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키우게 된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영작을 하면서 나름 스스로의 영어실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도움을 주신 분] 사대부고 영어 교사 최시경선생님

"학생들의 번역 실력이 훌륭하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영어로 영작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멋진 것 같다. 저도 20년 전 필통기자로써 활동하면서 가요(하나 되어)를 영어로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랐으며 이런 기회를 준 필통에 감사드립니다."

10시면 왜 모두 청소년 유해장소가 되는가?

PC방 노래방 10시 출입금지 전면 재검토되어야...

청소년들은 PC방, 노래방에 자주 간다. 시간을 때우러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기도 한다. 이 장소들은 공통점이 있다. 밤 10시부터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만고의 진리처럼 된 규제다. 하지만 대체 왜? 9시59분까지는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며 친구들과 함께 있던 공간이 1분 만에 불법 장소, 청소년 유해 환경이 되어 버리는지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가 있다. 노래방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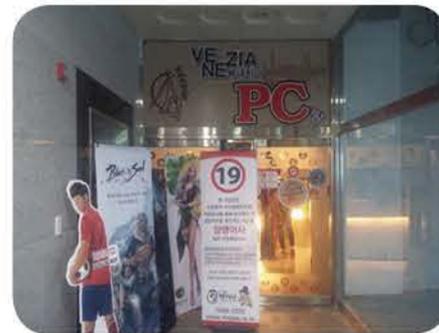
하고 어린 청소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10시 이후에는 안전한 집에 있으란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실 청소년들에게 10시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고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이다. 같은 시간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마칠 즈음이고 학원가에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있거나 편의점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괜찮고 건전하며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에 있으면 불법이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래방과 PC방이 유해 업소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과연 PC방과 노래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일까? 아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다.

숨통처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마저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을 완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옳지 못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10시 이후 어떤 곳에서도 청소년들은 있으면 안 된다. 모두 강제 귀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야간자율학습,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되고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놀면 안 된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해괴한 이야기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또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그 외에도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환경속에 거의 유일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자 놀이공간이 노래방과 PC방인 셈이다.

10시라는 기준을 두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화공간이자 스트레스 탈출구인 PC방이나 노래방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분명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백 번 양보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보더라도 출입규제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PC방과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을 내 쫓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잘 놀게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 그것이 곧 청소년을 진정 보호하는 길이다.

[취재/ 김의석(대아고2)기자]

교사들의 학교내 흡연 문제 있다

금연지도도 문제지만 간접흡연으로 학생 안전도 위협해...

청소년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논란거리가 되곤 하는 것이 흡연이다. 담배 자체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학생들의 흡연을 막으려 애를 쓴다. 더구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을 막는 것이 공부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기, 갈등과 고민이 쌓인 시기인 만큼 흡연의 유혹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피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은 있다.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한 제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교사들은 어떠한가? 만 19세가 지났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학교내에서 교사들은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일까?

교사는 만 19세 이상이므로 흡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규칙개정령에 의거 금연시설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이 불가능하다.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전 학교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즉, 학교의 모든 건물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별도로 교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흡연이 가능한 곳은 공

기가 순환이 되는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뿐이다. 과연 실제 생활에도 교사들은 이를 잘 지키는가?

교사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은 학생들 사이에 낱설지 않다. 학교 내 곳곳에서 발견되는 담배꽂초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주차장에서조차 담배꽂초가 튀구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인 담배 냄새의 불쾌함도 있겠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강력히 막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교육하는 교사가 교내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들의 고충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교사 또한 정당한 흡연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흡연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러함은 명백하다. 그래서 호기심에서든, 친구와 어울려서든, 반항심에서든 이유가 무엇이더라도 청소년기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 바로 학



교다. 그러한 학교에서의 교사로서의 흡연은 개인의 흡연권을 넘어 좀 더 큰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보다, 그 어떤 충격적인 금연 광고보다 학교에선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교사들 스스로 교내흡연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흡연으로 학생들과 동료들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는 세상 그 어떤 곳 보다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다.

[취재/ 한재덕(진주고1)기자]

우리는 詩도 무조건 외우면 되나요?

외움을 강요하는 학교 교육, 학생에게 남는 건 없다

문학 시간 때, 우리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만난다. 아름다운 비유와 깊은 통찰이 담긴 시를 볼 때도 있고, 심오한 상징과 메시지를 담은 소설을 본다. 교과서에서 보는 작품은 대부분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한 작품들이다. 작가의 치열한 고민 끝에 창작된 작품을 교과서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학생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 학교수업은 어떤가? 학생들은 작품의 주제, 작가의 의도, 시어의 상징, 심지어 등장인물의 심정마저도 자습서나 학습지, 선생님들로부터 주입되고 있다. 그저 시험이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 그 어떤 작품도 이미 정해지고 정답이라고 제시된 내용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외우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현상은 국어 시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학생들

은 당대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의 철학을 외우고, 영어 교과서의 본문을 죽자 살자 외우고 있다. 수학 문제를 유형 별로 푸는 방법을 외우며, 원자 번호만을 달달 외우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을 한다기 보단 암기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공부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워야만 풀리는 시험 문제에 있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서술형 문제를 낼 부분을 강조하고 학생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한다. 학생과 교사 사이 일종의 약속인 셈이다. 암기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효과적으로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선 교사가 강조한 부분을 외우면 되니 학생들은 이런 외우는 방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외우는 방식만으로 공부를 하다 보

니 학생들은 시험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외워두었던 것들을 대부분 잊어버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또 외우면 된다.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험 점수에만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할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다. 선생님이 먼저 바뀌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닌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시험 문제에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뿐만, 학생이 고민하여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제한된 시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떨어지는 수업 참여도 등의 조건속에서 교사 또한 기존의 외우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있을 것



이다. 현실적 조건 속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한 교사의 배려일수도 있다. 그리고 외우는 것 또한 교육의 일부이기도 하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배움보다는 외움이 일상화 된 학교는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학생들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각자의 감상을 풀어 놓고 공자의 '인(仁)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취재/ 광병규(진주고2)기자]

[I'M FASHION PEOPLE] 정민우(사대부고1), 임윤주 (경해여고1)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 그것이 곧 열정!

10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교복을 제일 많이 입게 된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교복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패션을 코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이다.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주위 친구들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보았다. 나름 패션리더를 자칭하는 친구들을 어떤 옷, 얼마짜리 옷을 입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오늘 뭐 입지?



FASHION PEOPLE 정민우 (사대부고 1학년)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 그 최대한을 생각한다."

SIDE1. 셔츠 하나가 주는 자유로움

SIDE2. 날이 추워지면 코트지...

SIDE3.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디



패피! 6문 6답

Q.자기소개해주세요! A.부설고등학교 1학년 6반 정민우입니다. Q. 나에게 패션이란? A.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대한 멋있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구요. Q. 제일 아끼는 옷은? A. 준지 스트라이프 셔츠를 가장 아깁니다. Q. 애인(썸남/썸녀)이 입어줬으면 하는 코디는? A. 제 여자친구는 어떻게 입어도 다 이뻐요.♥ Q.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A. 다크웨어 스트

릿패션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Q. 자신이 가장 잘 소화하는 코디는? A. 몸이 모델급이라 다 소화 가능해서 잘 어울립니다.ㅎㅎ ^^

릿패션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Q. 자신이 가장 잘 소화하는 코디는? A. 몸이 모델급이라 다 소화 가능해서 잘 어울립니다.ㅎㅎ ^^

FASHION PEOPLE 임윤주 (경해여고 1학년)

"패션은 말 그대로 열정!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다."

SIDE1. 청자켓 하나 걸쳤을 뿐인데...

SIDE2. 벨트 하나로 스타일을 더하다

SIDE3.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디



패피! 6문 6답

Q.자기소개해주세요! A.안녕하세요. 저는 경해여고 1학년 임윤주입니다. Q. 나에게 패션이란? A. 열정(Passion)이요. 제 친구가 Passion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패션에 열정적인 임윤주' 이렇게 단어를 외웠다고 해요.ㅎㅎ 같은 발음인 이 두 단어처럼 열정과 패션의 결과물은 비례하고, 패션은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Q. 평소 입는 패션 스타일은? A.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해

내고 싶어서 일부러 저의 스타일을 한 가지로 단정 짓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믹스매처를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섞기에 편하지 않아 재밌구요! Q. 내 애인이 입어줬으면 하는 옷? A. 저는 본인이 잘 입지 못할 바에야 제가 입혀줘 버릴 성격이라...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입고 색깔, 패턴을 저랑 맞췄으면 좋겠어요. 애인이 라이더자켓을 입었다면 전 가족치마를... ㅎㅎ^^. Q. 제일 아끼는 옷? A. 가족

치마요!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진~짜 유용해요. Q. 시도해보고 싶은 스타일 있나요? A. 롱부츠요. 이번 겨울엔 꼭 롱부츠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만간 저의 인스타에 롱부츠를 신은 제 모습... 궁금하면 jju_e2 보러 오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JOB을 잡아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미영님을 만나다

취업? 화려한 이미지? NO! 내 적성이라면 이보다 행복한 직업이 어디 있을까?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스타일리스트 김미영님〉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MBC경남에서 메이크업 코디 등을 맡고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46세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방송메이크업 경력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별도로 웨딩, 일반인들을 위한 메이크업 샵도 운영중입니다.

Q.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계기는?
A. 어릴 때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어머니가 미용을 권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미용을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용이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때 마침 메이크업 붐이 일어나게 되어서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면서 힘든 점은?
A. 현재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프리 생활을 18년 해왔는데 안정된 진로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요구받다 보니 일을 하면서 계속 배웠습니다. 방송 일을 하며 헤어도 배우고 컬러에도 관심이 생겨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따았습니다. 그런 배움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노력한 만큼 실력이 확실

여기! 주목!
"메이크업은 현장실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저에게 연락하면 언제든지 실습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필통 독자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atelier_miyoung)"

히 늘고 그 성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이 참 좋습니다.

Q. 현재는 주로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A. 근무시간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방송국쪽은 방송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주로 아나운서 분들의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웨딩, 일반 분들 메이크업도 해드립니다. 주말은 일반 행사를 참여하거나 광고 하는 분들 메이크업을 해드립니다.

Q. 방송 메이크업이 일반 메이크업과 다른 점은?

"노력한 만큼 실력이 확실히 늘고 그 성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이 참 좋습니다."

A. 조명이나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일반 메이크업은 그냥 봤을 때 예쁘면 되지만 방송은 조명, 옷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다르고 조금 두께 감 있게 화장을 하게 됩니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은?
A. 전 가벼운 화장을 좋아합니다.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사람마다의 장점이 부각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바뀌어요. 메이크업도 유행을 탑니다. 시대에 따라 완벽한 스타일을 선호했다가 또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최고의 메이크업이라 생각합니다.

Q. 다른 직업과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만의 매력이 있다면?

A. 메이크업과 스타일은 늘 변합니다. 유행은 항상 변화하고 그에 따른 기술과 정보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어쩌면 그 맨 앞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죠. 그런 직업 매력적이 않아요.

Q. 10대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메이크업업은?

A. 10대들은 좀 건강한 메이크업을 권해요. 요즘엔 성분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10대는 자신 그 자체가 최고의 메이크업이잖아요. 너무 과하면 그 빛남을 오히려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Q.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려면 대학 진학을 해야 하나요?

A. 이전에는 대학을 안 가도 가능했어요. 요즘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부라는 것이 좀 더 어릴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대학 진학 안 해도 실력만 있다면 괜찮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대학공부의 경험이 필요한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더 높은 전문성과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니깐요.

Q. 메이크업 꿀팁 좀 알려주세요~!!
A. 가을이라 건조하기 때문에 저녁에 슬리핑팩을 해서 보습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케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도 늘 깨끗

끗이 하고 비타민 많이 드세요. 남녀불문이죠^^

Q.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학과를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관련과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실무경력도 쌓아야 합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메이크업쪽 일은 자신의 적성과 정말 맞아야 해요. 그냥 취업을 위해 무작정 공부하고 뛰어 들다보면 한참 지난 후에 후회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실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실습을 하다보면 자신과 맞는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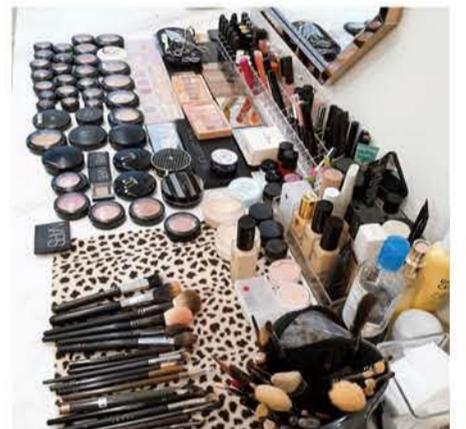
Q.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A. 꿈은 항상 꾸는 게 좋아요. 하고 싶으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 번 접해보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그 일을 알 수 없답니다. 미용을 꿈꾼다면 헤어, 네일, 마사지, 메이크업 등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적성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핑팩을 해서 보습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케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도 늘 깨끗



〈필통기자가 직접 메이크업을 받아 보았다〉



메이크업아티스트 궁금해??

[필요 기술 및 지식]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메이크업과 함께 피부관리, 헤어디자인 등 미용 관련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직업전문학교 및 여성발전센터, 기타 사설학원에서 메이크업 실무와 이론을 배울 수 있다. 현장에서 전문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의 보조원으로 활동하며 실무경력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헤어디자이너, 의상코디네이터 등과 함께 업무할 때가 많으므로 헤어나 피부, 의상 등의 분야까지 다양한 지식을 쌓아두면 좋고, 예술적인 분야인 만큼 미술이나 색채 등을 공부하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기 위해서는 미용사(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론 및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이론 시험에서는 메이크업개론, 공중위생관리학, 화장품학을 다루며, 실기시험에서는 메이크업 미용실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관련 학과]
미용과, 미용예술과, 피부미용학과, 뷰티아트과, 뷰티케어과, 뷰티디자인과 등

[관련 자격]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보건복지부)



[적성 및 흥미]
색에 대한 센스가 필요하며, 고객의 피부타입, 신체구조 외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한 상황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력과 이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기 위한 민첩성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실함, 끈기가 요구된다. 고객의 스케줄에 맞게 움직여야 하므로 건강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화장뿐만 아니라 헤어디자인, 코디네이터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미용 분야를 함께 익히려면 일하는 데 유리하다.

[직업 전망]
주로 메이크업 전문업체, 예식장, 미용실, 화장품회사, 방송국, 영화사 및 공연업체, 이벤트기획사 등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연예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메이크업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후 실력을 인정받아 원하는 분야에 입직하기도 한다. 패션쇼나 연극, 공연 등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메이크업강사로 활동하거나 창업할 수도 있다. 화장품업체의 경우 경력을 인정받으면 메이크업 시연회, 메이크업 강좌, 쇼 등을 담당하는 브랜드 프로모션

팀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수석메이크업아티스트까지 승진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는 2016년 약 8천 명에서 2026년 약 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900명(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직업]
이용사, 미용사, 피부관리사, 네일아티스트, 이미지컨설턴트, 특수분장사, 패션어드바이저, 패션코디네이터, 연예인매니저, 소품관리원

[진주투어] 진주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

교육도시 진주, 대학만 8개가 있다

수능이 바로 코앞이다.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대학' 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SKY 만을 쫓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고향인 진주에는 어떤 대학교가 있고 무엇을 배우며 위치는 어딘지 등은 물론 정식 명칭마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 이번 진주투어에서는 진주에 있는 다양한 대학교와 그 곳의 다양한 정보들에 대하여 파헤쳐 보았다.



한국국제대학교

내가 만든 세계가 중심이 되는 대학교

진주시에 위치한 사립 종합대학교이다. 한국 국제대학교의 전신은 1978년 3월 개교한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다. 1979년 진주여자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1980년 진주실업전문대학, 1989년 진주전문대학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었다. 2003년 4년제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고, 3월 진주국제대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2006년 산업자원부 주관 'CEO 공학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2008년 3월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한국국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한국국제대학은 2014년 현재 7개 단과대학 및 4개 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숙사는 436실을 갖추고 1,302명을 수용한다. 부설연구소로 기능성생물소재연구소, 농식품응용바이오테크놀로지연구소, 방사선융합기술연구소, 실크패션디자인연구소 등 1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한국 국제대의 숲은 진주>
한국국제대의 캠퍼스는 경사가 가파르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봄이면 벚꽃이 학교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게 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진촬영 명소가 된다.

진주보건대학교

이상은 드높게 실질은 알차게

1971년 학교법인 한가람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아 1972년 3월 진주간호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 이후 1979년 진주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했으며, 보건계열 학과를 신설하고 간호과 학생 수를 늘렸다. 1981년 학교 이름을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변경했다. 1990년대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개편했다. 1998년 진주보건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고, 2004년 기숙사를 착공했다. 2011년 11월 현재의 진주보건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4년 기준 대학은 간호학부,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보건행정과, 피부미용과, 관광과, 의약복지정보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실용영어교육원, 참인성교육원에 의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부설 및 부속기관으로 산학협력단, 실용영어교육원, HACCP교육원, 도서관, 학보사, 방송국 등이 있다. 기숙사는 248실을 갖추고 558명을 수용하고 있다. 호주 뉴캐슬대학, 뉴질랜드 크리스처처치대학, 일본 나가사키대학 등 해외 7개국 13개 대학 및 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 종합대학으로, 1910년 개교한 2년제 공립진주실업학교가 모체다. 이듬해인 1911년 진주공립농업학교, 1946년 진주공립농림학교, 진주농림중학교를 거쳐 1965년에는 5년제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72년 도립에서 국립으로 이관된 뒤, 1973년 진주농림전문학교, 1979년 진주농림전문대학, 1993년 4년제 진주산업대학교로 승격하였다. 2011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지금의 교명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하였다.

2014년 기준 5개의 단과대학(생명과학대학, 건설환경공과대학, 융합기술공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27개의 학과(동물생명과학과, 제약공학과, 인테리어재료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영어학과, 회계정보학과 등)와 4개의 학부, 그리고 3개의 대학원(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창업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시설로 공동실험실습관, 공학교육혁신센터, 국제교류원, 박물관, 종합농장, 학술림 등이 있다. 그밖에 동물생명산업센터,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건설기술연구소, 아동교육연구소, 청담사상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경남과기대의 숲은 진주>
경남과기대의 중심에는 350m에 걸쳐진 메타세쿼이아길, 아름다리 플라타너스 등, 주라기공원이라 이름 붙여진 작은 숲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진주교육대학교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참된 스승을 그린다

1923년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로 설치인가를 받은 이후 1940년 국립 진주사범학교로 문을 열었다. 1963년 다시 인가를 받고 2년제 진주교육대학으로 입학생을 받아들였다. 1983년 교육법에 의거해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3년 진주교육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계속해서 학생 수를 늘려갔다. 2006년 졸업생 수가 총 3만 명을 넘었다. 2011년 교육대학원 야간제 3개 전공(수학영재교육, 문화예술교육, TESOL 전공)을 신설했다.

2015년 현재 도덕과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실과교육과,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등 12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일본 아이치교육대학교, 중국 청도사범대학,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세크라멘토 등 해외 14개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었다.

2014년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0.3명,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12만 원, 졸업생 취업률은 68.3%였다.

[진주시 소재 대학 비교]

학교명	국제대	과기대	연암공대	교대	경상대	보건대
Symbol Mark						
면적	416,281㎡ (125,925평)	92,215㎡ (27,895평)	267,452㎡ (80,904평)	96,768㎡ (29,272평)	1,592,144㎡ (482,623평)	32,119㎡ (9,715평)
정원수	4,067명	4,584명	1,400명	1,930명	12,993명	3,254명
기숙사	○	○	○	○	○	○
평균 등록금	632만원	400만원	270만원	344만원	390만원	300만원

연암공과대학교

2010~2014 연속 취업률 80%

연암공과대학교의 전신은 1984년 개교한 연암공업전문대학이다. 1998년 연암공업대학으로 변경한 뒤, 2016년 3월 지금의 연암공과대학교로 다시 교명을 변경했다. 학교명 연암(蓮菴)은 LG그룹을 창업하고, LG연암문화재단을 설립한 고(故) 구인회(具仁會) 회장의 호를 기리기 위해 붙인 것이다.

1973년 학교법인 연암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구자경(현재 LG 명예회장) 씨가 취임하였다. 2004년 산학협력단을 발족하고,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201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으로 재지정되었다.

기숙사는 257실을 갖추고 695명을 수용한다. 도서관은 6만 5,000여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 대학의 3년제 과정 신입생 전원에게는 LG가 입학 첫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가계곤란 학생에게는 기숙사비도 지원한다. 2015년도 졸업생 취업률은 78.8%였다.



<연암공과대학교의 숲은 진주>
연암공과대학교를 가운데 두고 한 바퀴 빙 둘러 가좌 산에는 대나무길, 청풍길, 고사리길등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물론 진주시민들이 찾는 도심속 휴식처다.

국립경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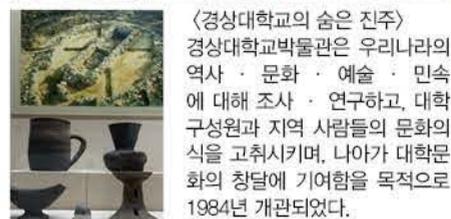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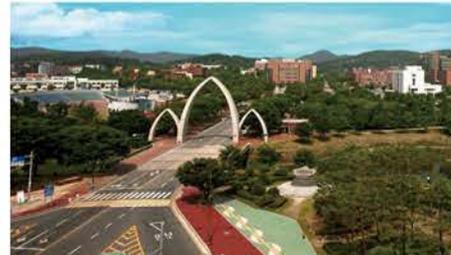
국내 5위 캠퍼스 크기, 경상남도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의 지역거점 국립 종합대학이다. 1948년 10월 개교한 경남도립 초급 진주농과대학이 전신이다. 1968년 3월 도립에서 국립대학으로 설립변경하고, 1972년 7월 경상대학으로 개칭하였다. 1980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교명을 경상대학교로 바꾸었다. 경상대학은 진주의 가좌캠퍼스 및 칠암캠퍼스, 통영캠퍼스 등 3개 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이다.

경상대학교는 생명과학 분야, 항공기계시스템 분야, 나노·신소재 분야의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기준 가좌 캠퍼스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등 10개 단과대학, 칠암캠퍼스에는 간호대학, 의과대학이, 통영캠퍼스에는 해양과학대학이 설치돼 있다. 대학원으로는 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10개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박물관, 학생생활관, 신문방송사, 출판부, 과학영재교육원, 국어문화원 등을 운영 중이다. 그밖에 사회과학연구원, 경남문화연구원을 비롯하여 22개의 연구소가 있다. 도서관은 135만 4,000여 책, 5만 4,000여 전자자료, 1,284종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3,42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학교기업으로 경남동물과학기술, 동물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19개국 111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환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 복수학위제, 해외탐방, 발전기금 해외유학장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학교의 숲은 진주>
경상대학교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예술·민속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대학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4년 개관되었다.

[필통편집국]

학생들의 시험 중 질문, 과연 공정한가?

시험 중 교사의 말과 행동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험, 학생들에게 시험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 한 과목 한 과목의 성적은 학생들에게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시험이기에 시험을 치르는 과정, 그리고 결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적잖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시험이 실시되는 중에 교사들이 시험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것이다. 교사들이 시험을 치기 전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 때면 항상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광경이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 도중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질문과 선생님의 답변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시간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긴장감 가득한 시간에 불필요한 질문으로 교실 안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또한 담당 교사에 따라, 질문 내용에 따라, 시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답변이 주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곧 질문을 하는 반과 그렇지 않은 반 학생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서는 '이런 건 대답해 줄 수 없다.' 라며 아까운 시험시간을 날리고 학생들의 멘탈까지 날려버리곤 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사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시험문제의 정답에 가까운 직접적인 힌트까지 제공하여 공정의 선을 넘

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최선은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험 문제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면 교사는 어떤 질문이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한다. 시험은 학생들의 수학적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생님의 답변으로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듯 실제로 시험 중간에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사들을 복도에 배치시켜두는 학교는 대아고, 제일여고, 진양고, 진주고, 사대부고, 진주기공, 진주중앙고, 동명고, 명신고, 선명여고, 경해여고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때면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문제를 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성적, 진로, 미래를 결정한다. 그만큼 공정함이 따라야 한다.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같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그 어떤 차별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교사와 학교는 그것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험도중 일어나는 학생들의 질문과 교사들의 답변에도 그 공정함이 유지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취재/박서진(진양고1)기자]

학교에서 칫솔 관리 어떻게 하니?

학교에서 양치질은 일상, 칫솔 살균기 설치해야...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중식과 석식, 식사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이러한 학교생활에서 누구나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양치질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뿐 아니라 성장기 신체 건강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식사 후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구취를 없애주기도 하는 양치질, 입 속 세균을 퇴치하는 양치질은 학교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일상의 하나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칫솔이다. 날마다 양치질에 사용하게 되는 이 칫솔을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또한 건강에 직결되는 이 칫솔 관리에 학교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진주의 몇몇 학교는 놀랍게도 칫솔 살균기

를 배치하고 있다. 반마다 칫솔 살균기가 배치되어있고 학생들이 돌려 당번까지 정해져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칫솔 살균기가 있다고 해도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학교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에서 칫솔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 물어 보았다. "그냥 컵에 꽂고 사물함에 넣어둔다." "물 컵에 꽂아 책상 위에 올려둔다." 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다. 칫솔 살균기가 배치되어있지 않다면 칫솔 관리는 학생 개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학교에 칫솔 살균기가 배치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현재로서는 희망 사항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칫솔 살균기 없이 칫솔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우선 양치질 후 칫솔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칫솔모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칫솔을 깔끔히 씻어주고 물기를 털어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칫솔 사용 후 습기가 많은 사물함보다는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어 건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칫솔을 쓰고 케이스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통풍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칫솔 꽃이에 넣어두는 게 낫다. 또한 여러 개의 칫솔을 한 곳에 보관해둔다면 세균을 옮길 위험이 있으므로 칫솔 보관은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칫솔 살균기의 경우엔 일주일에 한 번은 베이킹소다로 닦아주면 위생에 문제없이 청결하게 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칫솔은 하루에 적게는 한번, 많게는 두 번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데, 칫솔은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칫솔 살균을 하는 방법으로는 뜨거운



운 물에 소금을 넣고 칫솔을 담귀 2~3분 소독하거나, 구강청결제에 20~30분 담귀 두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우리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칫솔,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무엇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학교 내 칫솔 살균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취재/ 전시은(진양고2)기자]

5시가 되면 문 닫히는 학교 보건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는 퇴근,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 대입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학, 영어교사?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진로담당교사? 그것도 아니면 맛있는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정말 빼 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 바로 보건교사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교내 위생관리까지 담당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사고에 대한 대처다

학교는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에서는 보건교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응급사고가 났을 때 보건교사의 주도아래 응급처치를 잘 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긴 사례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보건교

사가 없다면 어떨까?

진주시내 중고교를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가 아예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았다. 학생 수가 적은 시 외각 지역 학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양중학교, 사대부중, 진주고, 경남예고, 경남정보고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이 의외였다. 이렇듯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다른 과목 교사가 보건 담당교사를 겸임한다. 수업과 보건관련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선 보건교사를 대신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방과 후, 야자까지 학생들은 밤 늦게 까지 학교에서 생활한다. 각종 안전사고가 밤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보건실이 일찍 문을 닫아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야자 쉬는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보건실 문이 닫혀서 집 가서 치료 받았어요" "석식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건쌤이 퇴근하셔서 소화제를 못 받았어요" "방과 후 배가 아파서 쉬는 시간에 보건실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듯 학생들이 문 닫힌 보건실을 마주한 적지 않은 경험들을 이야기 한다.

보건교사라고 해서 보건실에서 모든 일과를 보내지 않는다. 성교육, 위생교육 등 보건수업을 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시험 감독으로 보건실을 비운다. 또한 교육이나 연수 등으로 학교를 비우는 일 또한 자주 생긴다. 이럴 때 보건실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학생들은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도 퇴근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으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생활 한다. 당연히 보건교사는 없다.

야간자율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과 후 저녁 식사 시간까지라도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은 그대로 공식적으로 학교에 남아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위급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문제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취재/ 진서영(삼현여고1)기자]



[필통 토론방] 퀴어문화축제 여러분의 생각은?

진주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면?

이번 10월호 독자토론포럼의 주제는 퀴어 문화축제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의 소개에 따르면 퀴어 문화축제란 한국사회에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향유의 제약을 해소하며,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공개문화행사라고 한다.

그들에게 미쳤냐는 말 대신 필요한 것

한국에서 퀴어축제의 역사가 올해로 20년이다. 퀴어축제는 2000년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후 대구, 전주, 제주, 부산 등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다. 20년이라는 시간이면 상황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은 더 확대되고 축제 현장에서 반대행동도 더 극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축제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작년 인천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축이 돼 확대재생산 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특정 집단

올해부터는 경남에서도 퀴어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은 한국의 특성상 반대하는 시각도 매우 많은 편이다. 축제가 열릴 때 마다 개최 측과 반대세력의 충돌도 항상 있어 왔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과연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혐오, 난민혐오, 이주민혐오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 성소수자운동에 비한다면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노동운동을 향하는 노조혐오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노조책임론이 이제는 일상화됐다. 목숨을 걸고 고공에 올라 깃니를 끊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언론 기사에 조롱과 혐오의 댓글들이 난무한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소수자 혐오가 강화되고, 혐오 세력이 점차 조직적으로 세력화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접근성을 가지는 온라인에서 일상적 혐오행동이 이를 매개하고 있기에 적절한 대응도 쉽지 않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할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공



동체성을 가져야하는가(누구도 차별받고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권리를 가지는 시민은 누구인가(물론 모든 인간이다), 특정 집단 또는 개인 간 가치와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원리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한쪽을 배제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새로운 윤리의 발견) 등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실천 외에 왕도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힘이 토대가 돼야 법과 제도, 공적 기관들의 인식과 태도, 정책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연대, 차이의 존중은 이것이 가능한 기본 조건이다.

동성애 라는 사랑에는 그 어떤 잘못도 없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그 사랑이 '보편적이지 않다' 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할 권리를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오래 전부터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가 보편적인 사랑의 형태였다면, 지금의 상황과는 반대로 이성애자들이 차별 받았을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성 간의 사랑을 더럽게 보고, 절대 금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또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같은 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반대하고 퀴어 축제 또한 반대한다는 건 '내로남불' 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진주여고 1학년 정민경)

누구든지 자신의 성 정체성이 어느 쪽이든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더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과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웃기다. 상대의 성 정체성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또한, 자신이 계속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듯이 퀴어 축제에 참가한 성 소수자들도 축제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도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존중해 달라' '차별하지 마라'라는 것을 행동으로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퀴어 축제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잘 전달이 되어 퀴어 에 대한 인식의 폭이 지금보다 넓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선명여고 1학년 김태희)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의 문화 축제이다. 축제에서는 '혐오 하지마라' '우린 정상이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문구로 차별을 멈추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축제의 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티 팬티나 엉덩이가 다 보이는 스타킹을 입거나 부스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의 성기모양의 쿠키나 빵을 판매한다. 이러한 모습은 축제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에 반대로 오히려 더 시선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퀴어 축제가 본래의 의미를 찾아 혐오스러운 것이 아닌 성소수자로서 받는 차별을 멈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진주여고 1학년 김하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은 좋지만 축제까지 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축제 내용도 문제고 성정체성이 확립이 안된 상황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면 퀴어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하게 알려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굳이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축제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자유롭게 다양한 공간에서 특색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진주여고 1학년 최현지)

퀴어 축제는 옷을 다 벗고 불건전하게, 문란하게 노는 축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다 맞지도 다 틀리지도 않다. 옷을 벗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처럼 그들의 시위이자 표현의 한 방법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우리는 저들을 존중해야 하고 금지하면 안 된다. (경해여고 1학년 전은서)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존중해 달라' '차별 하지 말아 달라' 라는 내용이 담긴 깃발을 들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티 팬티를 입고 엉덩이가 다 보이는 스타킹에 반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며 남녀 성기가 그려진 기념품을 판매, 전시합니다. 이것은 성소수자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존중해달라는 태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진주여고 1학년 강민주)

퀴어 축제는 수단을 이용해 성소수자인 그들을 알아봐 달라고 외치는 절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종교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완전히 배척하기도 하고 아직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솔직히 퀴어 축제가 행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축제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논란만 만들어내니 성소수자가 아닌 내 입장으로는 굳이 해야 하는 축제가 아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입장으로는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을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퀴어 축제는 단순히 성소수자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주여고 1학년 박예인)

우리나라에선 퀴어 축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하다. 서울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진행 했지만, 일부 참가자가 반라상태 즉, 거의 벗은 상태로 행진을 하거나 선정적인 모양의 과자나 자위 도구, 콘돔 등이 자주 보여 공공시설에서 열리는 행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또한 이러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혐오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크다. 성소수자 본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지킬 행위는 철저히 지켜야 하며, 주최 측도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혐오보다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주고등학교 1학년 하서준)

우리는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또한 존중해야 한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임을 알리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중 2학년 이민규)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는 점과 각종 언론 매체들에서 보도하는 사진과 내용이 자극적인 것에만 맞춰져 퀴어 축제를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봐 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퀴어축제를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축제도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일중학교 2학년 박세인)

"혐오를 멈추고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줘라. 우리를 존중해줘라" 퀴어 축제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껌데기만 이룰 뿐 속은 자극적이고 외설적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퀴어 축제의 후기를 보면 남자가 티 팬티를 입고 엉덩이가 다 보이는 스타킹에 반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며 남녀 성기가 그려진 기념품을 판매, 전시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항문성교를 강조합니다. 저는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퀴어 축제처럼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내용을 바꿔서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변화시킨다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던 주변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여고 1학년 김민지)

남자 여자 모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라고 무조건 여자를 사랑해야한다 남자한테 설레선 안 된다. 여자니까 남자를 사랑해야한다 여자한테 설레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남자가 남자한테 설레었거나 여자가 여자한테 설레었을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이성애자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성 정체성은 이성애자이다. 라고 말하면 그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게 있죠? 자기 자신이 남자라면 남자와 교제가 없었다면 양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은 생각해볼길 부탁드립니다. (경상사대부고 1학년 박경민)

퀴어 축제는 기존에 소외되던 성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 전면에 나선 문화 행사라는 점만으로도 큰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퀴어축제가 단지 문화 행사만은 아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인식의 변화라는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아쉬운 모습도 없진 않다. 축제가 거듭되면서 내용의 선정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일부 참가자와 부스에서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물론 법으로 허용된 수위라면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퀴어 문화축제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과한 선정성을 가진 복장, 굿즈 등은 사용을 자제하는 쪽이 성 소수자들의 편견해소에도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밖 원지현)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우석대 항공서비스학과를 김예인을 만나다

하늘 위 서비스마스터를 꿈꾼다 항공서비스학과와 함께 미래를 날아보자



〈우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라일락 홍보부장 김예인〉

분히 항공서비스학과에 오실 수 있습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를 선택하였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A. 솔직하게 저는 외모가 뛰어난 편이 아니어서 주변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모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의 분위기, 브랜드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능력을 기르고자 더욱 노력했습니다.

Q. 실제로 승무원학원을 다니는 것이 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나요? (학원 다니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A. 저는 학원을 다녔었지만 그다지 추천 드린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는 것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학원은 자신에게 원래 있던 강점을 타인이 찾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학하기까지 시간이 여유롭다면 학원보단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추천 드립니다.

Q. 입학 면접 때 외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A.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하나의 장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는 군기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하나요?

A. 다른 학교의 경우 어떨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 우석대학교의 항공서비스학과는 소위 말하는 군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저희 학과는 선후배 상관없이 서로 배려하려 노력하고 서로를 사회인으로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Q. 학과 내 남녀 성비는?

A. 흔히 항공서비스학과라고 하면 여성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저희 학과의 경우 여성학우님이 70%, 남성학우님이 30%로 남성학우분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번 2020년도 수시면접에선 남학생이 많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나요? (승무원 외의 직업이 있나요?)

A. 저희 학과에선 관광관련 과목에 대해 배우므로 승무원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직업으로도 취직할 수 있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Q. 2년제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학의 각각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장점으로는 2년제의 경우 승무원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4년제의 경우 좀 더 여유롭게 여러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은 졸업 후 항공사 취직 후에 연봉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과, 4년제의 경우 꼭 승무원과 관련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Q. 공부하는 주요 과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저희 주요과목은 객실 실무와 서비스 관련 과목인데요, 그 중 재미있게 들었던 서비스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과목에선 글로벌 문화와 매너, 에티켓에 대해 배우고, 소비자 서비스와 마케팅 관련 전문적인 부분도 배웁니다. 이 과목은 대부분의 서비스업과 마케팅 업무에 적용할만큼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Q. 추천해주고 싶은 후배와 항공서비스학과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후배는?

A. 저는 평소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길 좋아하는 학생분들께 항공서비스학과를 추천 드립니다. 학과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은 없지만,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공부에 뜻이 없고 그저 대학이라는 것

만 보고 진학하는 학생분들인데요, 저는 이런 경우엔 승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은 따로 취업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항공서비스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항공서비스학과와 항공사 취업은 나이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빠르게 진학하고 자신을 재촉해서 세상에 발 맞춰갈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실 필요 없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 없이 바뀌지만 자신은 평생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후배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ㅎㅎ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라일락(페이스북) 홍보부장 김예인이었습니다.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라일락의 홍보부장 김예인입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란 무엇인가요?

A. 주로 승무원을 목표로 항공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공부하는 전공학과입니다. 또한 항공관련 행사와 대외활동 등을 하기도 하며 일반적인 4년제 대학과 같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오래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평소 다양한 대외활동과 스피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승무원이 되기 위해선 여러 능력들이 필요하지만, 항공서비스학과에 오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보단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성실함이 보이는 것과, 외국어 관련 자격증, 항공과 관련된 서적에 대해 준비하신다면 좋



〈한 달에 4~5번 정도 자유학기제 학과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석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전국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항공서비스학과 의 모든 것

전국에는 많은 항공관련학과가 존재하고 있다. 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과, 항공서비스학과, 스튜어디스과, 항공관광과 각 대학마다 명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모든 학과들은 바로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을 살펴보면 생긴 지 몇해 되지 않았지만 폭발적인 인기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는 한양여대 와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하여 11개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2년제 항공관련학과가 가장 많은 곳을 뽑자면 단연 경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하공전을 비롯하여, 수원과학대, 연성대, 대림대, 부천대등 대다수의 2년제 대학들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가 2년제 대학의 본고장 이라면 충청권은 4년제 항공서비스학과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서대학교, 극동대학교, 백석대학교, 청주대학교등 이러한 대학들이 모두 충청남북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항공서비스학과]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년제, 4년제 통틀어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 중 하나다. 국내 최초의 승무원학과로 한진그룹에서 설립한 학교다. 입학정원이 200여명으로 많은 편, 취업률도 높은 편이

어서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면접 시 학교에서 흰 티셔츠와 슬리퍼를 제공하고 면접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한서대 항공과는 4년제 대학이다.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엄청 높는데, 다양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쟁률의 차이가 크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교육, 어학연수 등 실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게 되어 취업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국교통대 항공관광학과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중 하나인데다 소수의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40대 1 정도로 높다. 국립대학이라 등록금이 저렴한 특징이 있고, 인원수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수원과학대 항공관광학과

2년제 대학 중에서 인하공전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대학으로 수시 1차, 2차, 정시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37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면접 때 면접복장, 헤어, 메이크업 후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아시아항공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으며, 입학 후에는 교육이 타이트하기로 유명하다.

항공서비스학과
[4년제] 경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양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우석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원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2년제] 경북대학교/ 대림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신구대학교-3년제/ 연성대학교/ 오산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3년제/
관련 유사학과
[4년제] 가톨릭관동대학교(항공운항서비스학전공)/ 경동대학교(항공경영학과)/ 경운대학교(항공운항학과)/ 김천대학교(항공관광호텔경영학과)/ 나사렛대학교(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배재대학교(항공운항과)/영산대학교(항공관광학과)/위덕대학교(항공관광학과)/ 유원대학교(호텔관광항공영어과)/ 제주국제대학교(항공서비스경영학과)/ 청운대학교(항공서비스경영학과)/ 청주대학교(항공운항학과)/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운항학과)/ 한서대학교(항공운항학과)/ 한양여대(항공과)/ 호원대학교(호텔관광.항공학부)
[2년제] 강동대학교(항공관광과)/ 경남정보대학교(항공관광과)/ 경북전문대학교(항공운항서비스과)/ 경인여자대학교(항공관광학과)/ 계명문화대학교(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대원대학교(항공관광과)/ 동남보건대학교(항공관광영어과)/ 동주대학교(항공외식관광서비스)/ 부산경상대학교(호텔관광항공계열)/ 부산여자대학교(항공운항과)/ 상지여자대학교(항공운항과)/수원과학대학교(항공관광과)/ 인천재능대학교(항공운항서비스과)/ 인하공업전문대학(항공운항과)/ 장안대학교(항공관광과)/ 청암대학교(호텔항공서비스과)/ 충청대학교(항공호텔관광학부)/한국영상대학교(중국항공승무원과)/ 한양여대(항공과)

[마이펫&우리에티켓] 뱀뱀이 그리고 햄스터 한 가족

이게 실화? 뱀뱀이 그리고 햄스터 한 가족

21세기, 현재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서적 교감을 가지는 동물을 넘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진주의 청소년들도 여러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펫>은 우리 청소년들의 반려동물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아지, 고양이부터 도마뱀, 달팽이 등 모든 반려동물들과 함께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펫티켓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뽐내세요!



콘스네이크라바 뱀뱀이



- ◇뱀의 종: 콘스네이크라바
- ◇이름: 뱀뱀이
- ◇나이: 3살
- ◇성별: 모름
- ◇학명: Elaphe (Pantherophis) guttata
- ◇원산지: 미대륙, 멕시코 등등
- ◇성체크기: 150cm 전후
- ◇키우게 된 계기: 동네 쥐는 씨를 말려버리려구.
- ◇특징: 손을 대면 사냥자세를 취하면 식식거리다가 물어버림
- ◇좋아하는 간식: 핑키(쥐)
- ◇하고 싶은 말: 날 잡아먹진 마렴!



주인 : 장해인(진주고등학교 2학년)

콘스네이크 이 정도는 알아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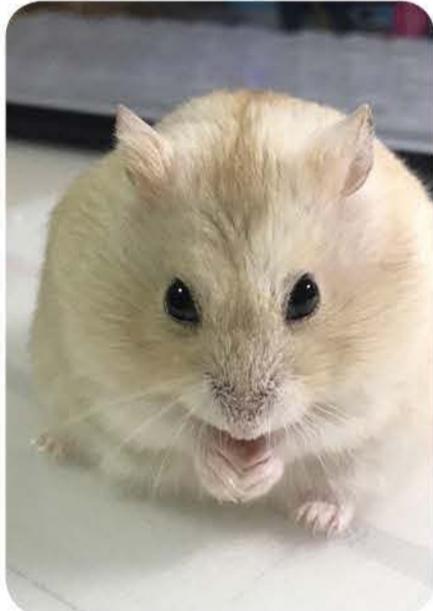


콘스네이크에 크기는 1m에서 최고 1.8m 까지 큼니다 보통 1m정도에서 성장이 느려져 집안에서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콘스네이크의 한국이름이 옥수수뱀인데 이는 옥수수창고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와 배에 있는 무늬가 옥수수알무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참 매력적인거 같네요. 콘스네이크의 원래 서식지는 남미와 캐나다이고 나무를 쉽게 오르고 평소에는 바위나 나무 밑에 숨어있는게 특징입니다. 날렵하고 피부도 아주 매끄럽습니다.

서식지에 맞춰 콘스네이크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케이지 안을 27-28도 온도로 맞추고 습도 조절을 해주게 중요합니다. 습도는 40~60도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콘스네이크는 야생에서는 개구리, 쥐, 작은새를 먹고 자랐는데요. 가정에서 키울 때는 냉동쥐를 일주일애 1-2번 주면 됩니다.

콘스네이크는 다른 뱀들처럼 사육방법도 쉽고 또 크기도 적당해서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좋습니다. 수명도 10-15년으로 오래 함께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햄스터 백설, 땅콩, 크림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백설, 땅콩, 크림이>



주인 : 김은영(선명여고 1학년)
▶인스타그램정도 운영 중이니까 귀여운 백설이, 땅콩이, 크림이 많이 보러 오세요!
@hamster__9

- ◇햄스터 종 : 드워프 햄스터 (펠, 푸딩 믹스)
- ◇이름 : 백설(암컷), 땅콩(수컷), 크림(수컷)
- ◇나이 : 1살 추정, 1살 추정, 1살 미만
- ◇키우게 된 계기 : 별다른 계기는 없지만 어렸을 적 햄스터를 키웠을 때 너무 못해준 게 미안하고 한이 돼서 백설(모)와 땅콩(부)를 크리스마스에 분양받아 키우게 됐다.
- ◇좋아하는 간식 : 생밀웜, 건조밀웜, 해바라기씨, 코코넛가루, 치즈

◇키우면서 있었던 일화
백설과 땅콩은 처음 보자마자 분양 받았다. 키울 당시 아직 새끼햄스터라 한 케이스에 며칠 두고 키웠다.(생후 2주까지는 한 케이스에 키워도 됩니다.) 점차 커져서 다른 케이스에 두었는데 분리하기 전 그 며칠 만에 새끼를 뱀 줄은 꿈에도 몰랐다.
◇햄스터 키울 때 팁!
햄스터는 1햄스터 1케이스가 원칙! 햄스터를 포함한 소동물들은 물사워를 하면 안된다. 아무리 더러워도 물에 담구지 말고 면봉에 물을 묻혀 닦아주기.

◇햄스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너네와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알게 됐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가 크리스마스 제일 좋아하는 거 알아? 그때 너네를 만나서 그런가 봐.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백설아 땅콩아 크림아 내가 더 열심히 보살펴 줄테니 너넨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미안하고 사랑함~

햄스터 이 정도는 알아두자



햄스터는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로 그 특성이 사람, 강아지 등과 매우 다르고, 햄스터의 종에 따라서도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우선 햄스터는 종에 따라 털의 길이, 성체의 체중, 수명,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체의 체중은 30g~500g까지 다양하며 수명도 1년~3년으로 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햄스터는 대부분 야행성으로 밤 사이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가려는 습성, 굴을 파고 사는 습성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집은 깊어도 닿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쉽게 열리지 않는 지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집 내부에는 두꺼운 베딩(갈짚, 이불, 종이..), 들어가서 쉬기 적당한 둥지, 밤새 긴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쳇바퀴, 장난감 등을 놓아주어야 햄스터가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므로 여러 마리를 키우고자 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햄스터는 잡식성 동물이며 먹이로는 과일, 채소, 씨앗, 곤충 등을 먹습니다. 음식을 비축해 두는 습성이 있어 볼 주머니에 음식을 가득 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니가 다 자란 상태로 태어나며 생후 약 7~10일 이후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뼈가 약하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동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나쁘고 후각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놀리면 갑작스럽게 무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핸들링에 주의해야 합니다.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삼현여고 1학년7반



안녕 친구들~ 우리 반 분위기에이커야. 누군지는 알아 내놔. ㅎㅎ 우리 반 처음부터 다들 너무 잘 맞고 호탕하고 재밌었는데, 지금도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지! 다들 고등학교는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1학년 때 반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덕분에 다들 안 힘들고 적응 잘 했던 것 같아...

우리 반 친구들 각각의 개성도 다 다양해서 더욱더 재밌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 시간들 더 재밌게 보내고 예쁜 추억 많이 가지고 2학년 올라가자. 1학년7반 안녕!

From. 우리 반 분위기메이커

To. 2학년 4반 도지들에게

안녕 난 우리 반의 반장 김동연이야. 이번에 수학여행가서 별 탈없이 잘 지내고 와서 다행이야. 우리 도지들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이번 수학여행을 계기로 우리가 더 친해지(?) 느낌이 들어!! 우리 담임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 ^^ 우리 앞으로 담임선생님 조금만 더 도와드리자~ 남은 2학기도 잘 지내보자. 문과 최강 엘리트 2학년 4반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조금 더 양보하고 더 신경 쓰는 반장이 되도록 할게!! 우리 반 도지들 사랑해



From. 우리 반 존재감 빵피인 반장

To. 문산이

하이 친구들. 우리가 친구로 알고 지내지 벌써 10년이 흘렀네.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학교인 애들이나 중간에 단대로간 애들도 다같이 놀고 또 놀면서 후회없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 ㅋㅋ 이제 모두 자기 꿈을 찾아서 편지를 보러가거나 살기시힘을 치고 자격증시험을 보는데 어떤 일이든지 전부 잘 할거고 잘 되거야. 시간이 흘러도 어릴 때처럼 즐겁게 후회없이 놀자. 오래보자 부랄들



From. 회장이



To. 송현석

현석이 안녕~ 나는 너의 하나뿐인 친구선우야. 너가 항상 내 걱정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내년에도 같은 반 되면 좋겠다. 항상 고마워 나의 친구^^

From. 한선우

To. 나현이

안녕 이쁘나 나는 미노야. 유등축제 때 한복 입을 나현이를 보고 첫 눈에 반한 게 정말 옛 그제 같은데. ㅎㅎ 우리가 사귀지 벌써 1년이 지났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항상 나현이랑 함께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 ㅎㅎ 우리의 1주년을 축하하려고 특별한 조그마한 이벤트?로 편지를 필통 우체통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맞아서 실패한 것 같아... 그래도 감동 먹었지? ㅎㅎ 가끔 미노가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친심으로 재밌어하면서(?) 웃어주고 항상 사랑해주는 여보에게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1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고맙고 남은 100년 동안 사랑당해주려! 많이 사랑해

From. 민호



To. 경해여고 융합과학 동아리 유레카에게

안녕 애들~ 나 다은이야. 필통 신문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우연찮게 주어져서 이렇게 편지를 써. 다들 이거 읽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색함 속에서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부장이 야습차게 준비한 게임들과 홍창균 선생님의 요리로 너무 즐거웠던 하계 MT, 먼지 잔뜩 먹어 가며 했던 100년 만의 대청소, 애기들보다 우리가 더 즐거웠던 교육봉사, 자각비 면제권을 두고 치열했던 과학토론, 제일 최근에 했던 유레카 롤러코스터 경연대회까지!! 너희랑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행복했어. 비록 지금은 주말 이른 아침 씻지도 않고 통통 부어서 만나지만, 몇 년 후의 우리는 맑고 빛나는 모습일거야.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아 슬프지만, 남은 기간 동안 다 같이 축제 준비에 힘쓰자 마지막으로 부장, 동계 MT도 가고 시포요!

From. 다은



To. 현서 채현 다인 다른 윤지



안녕 이렇게 편지 쓰러니깐 되게 부끄럽당 ㅋㅋ 일단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어서 좀 신기해. 나만 그런 거 아니지? ㅋㅋ 그리고 항상 힘들 때 옆에서 웃겨줘서 너무 고마워 애들아 그러니깐 앞으로도 지 금처럼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 아차 그리고 다가올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옆에 짝이 있으면 좋겠다. ㅋㅋ 그럼 우리 오래보자

From. 윤댕이가

To. 이향영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할하 쓸데없는 기회가 생겨 LETTER를 쓰게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영광일 거예요^^ 천하의 전규원이 쓰는 편지라니... 좋겠다아~ ㅋㅋ (정색) 우리가 알게 된 지도 벌써 4년째야. ㄷ ㄷ 중2 때는 마냥 행복했고, 중3때가 피크였지. 씁스 랍 ^^ 돌아가자. 노래방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만 하고. 어휴 이제는 생활에 찌들어 버렸네. 둘 다. 자칭 정시러지만 수시에 미련 못 버린(이) 우리들 공부 좀 해야될텐데. ㅋㅋ 학원

다닐 때 나 깨우느라 고생했어. ㅋㅋ 늘 고맙다. 친구야. 우리 정시 조지고 부셔서 조지부시 되자. ^^ 서울에 있는 코노 가서 한바탕 웃다가 나오시다! 슬음한다! 이향영.★

From. 집을 사랑하는 잠탱이



To. 별을 보는 공주 해원이에게^^

안녕 해원아... 깜짝 놀랐지 나 윤지야.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당. 우리 2년 동안 같은 반 하면서 완전 재밌는 일만 있었잖아. ㅋㅋ 넌 날 진주에서 제일 좋아하구... 그치?! 우리 앞으로 1년 더 같은 반 해야 하나까 더 잘 지내보자. 이 몰어뜬어머리고 싶은 해원아! 우리 더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같이 좋은 곳 가자! 화이팅! 작곡 파이팅! 안테나 화이팅 별공

From. 윤지



[정리/ 하강영(대아고2)기자]

